
2021년도 KICCE 연차보고서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2021 ANNUAL REPORT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2019
2020
2021

CONTENTS

연구소 소개

- [006](#) 설립목적
- [006](#) 주요기능
- [007](#) 경영목표
- [008](#) 연혁
- [010](#) 조직도
- [011](#) 일반현황

2021년도 주요연구

기본연구

- [014](#) 2022~2027 유아교육·보육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 [016](#) 양육지원정책 중장기 재정 추계 및 부담구조 개선 연구
- [018](#) 영유아 인구 희소 농어촌 지역 보육·교육 서비스 통합 지원 방안 연구
- [020](#) 포스트코로나 시대 양육지원체계 재구조화 연구
- [022](#) 영유아 보육·교육기관과 아이돌봄서비스의 효율적 연계방안 연구
- [024](#)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 적정화를 위한 정책 방안 연구
- [026](#) 에듀테크 활용을 통한 영유아교사 전문성 제고 방안
- [028](#) 다문화 영유아의 이중언어 발달을 위한 부모 역량강화 지원 방안
- [030](#) 유아놀이문화 확산을 위한 전통놀이 활용방안 연구
- [032](#) 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한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영유아 지원방안 연구
- [034](#) 코로나19 대응 영유아 교육·보육 정책 국제비

일반연구

- [036](#) 행복한 육아문화 정착을 위한 KICCE 육아정책 여론조사(V)
- [038](#)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IV): 2020~2021년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 [040](#)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IV)
- [042](#) KICCE 육아물가지수 연구(IV)
- [044](#) 초저출산 사회 극복을 위한 육아친화마을 조성 방안 연구(III): KICCE 육아친화마을 인증사업 시범 적용
- [046](#) 「2019 개정 누리과정」 모니터링 및 지원방안 연구(II)
- [048](#) 육아존중문화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방안 연구(III)
- [050](#)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 2021(한국아동패널 II)
- [052](#)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연구(Korean ECEC Panel Study)

수시연구

- [054](#) 영아수당 도입방안 연구
- [056](#) 아동학대 재발방지를 위한 사후 관리 시스템 강화 방안 연구
- [058](#) 유아의무교육 및 무상교육·보육의 쟁점과 과제
- [060](#)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 정비 방안
- [062](#) 학부모안심유치원 정책성과 분석 및 확대방안
- [064](#) 공립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 성과와 발전방안 연구
- [066](#)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현황 및 개선 방안 연구
- [068](#) 코로나19 보육정책 대응 백서
- [070](#) 다문화 영유아 어린이집 보육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연구개발적립금연구

- [072](#) 빅데이터에 기반한 육아정책 쟁점과 향후 과제



2021년도 주요활동

주요행사

- 076 육아정책 심포지엄
- 077 KICCE 육아정책 연구생태계 네트워크 포럼
- 078 KICCE 정책토론회
- 080 주요 간담회 및 KICCE DATA 콜로키움
- 081 국제세미나
- 083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 084 정책세미나
- 085 유관기관과의 공동 개최 학술행사
- 086 업무협약

주요 간행물

- 088 육아정책포럼
- 090 육아정책 Brief
- 091 Issue Paper
- 092 KICCE Policy Brief
- 093 세계육아정책동향시리즈
- 094 육아정책연구
- 096 International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2022년도 추진계획

2022년도 연구사업 추진방향

- 100 2022년도 연구사업 추진방향
- 101 중점연구사업

2022년도 사업개요

- 103 기관고유사업
- 105 일반사업
- 107 2022년 연구사업 총괄표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는 2005년 육아정책개발센터로 시작하여 현재까지 국책연구기관으로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와 육아관련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육아정책 연구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3년 간 지속된 코로나 팬데믹이 종식될 것이라는 희망과 함께 팬데믹 이후 달라진 육아환경으로 인해 새로운 정책과제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기에 영유아기를 보낸 아동의 언어 및 사회성 발달 지연 문제나 학습격차는 국가차원의 해결책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나라 출산율은 세계 최저를 기록하고 있고, 출생아수가 사망자수보다 적은 인구 데드크로스(Dead cross)는 2019년 이후로 더욱 심화되어 자연 인구감소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5월 새정부가 출범하면서 국정과제를 통해 새로운 육아정책의 방향성이 제시되었습니다.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라는 세 번째 국정목표 하에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이 국정과제로 선정되었습니다. 미래의 인적자원인 영유아들이 공정한 출발선을 가지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겠다는 국가 책임성이 강조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육아정책연구소는 국책연구기관으로 새정부의 육아정책 기조에 맞추어 아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육아정책연구소장
박상희 Sang

육아정책연구소는

2021년 코로나 팬데믹 전후 육아현장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코로나19 대응 영유아 교육·보육 정책 비교, 포스트코로나시대 양육지원체계 재구조화 연구,
코로나시기 지역사회 돌봄공간 활용 및 컨설팅 연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아동학대 및 취약계층 아동의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아동학대 재발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시스템 연구,
다문화 영유아의 이중언어 발달을 위한 부모 역량강화 연구, 장애아동 실태조사 및 통합적 지원체계 연구,
사회격차 해소를 위한 북한이탈 가정 지원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영유아 미디어 이용 적정화 정책 연구, OECD 국가 사례 분석을 통한 유아교육 디지털 기술 활용 방안 연구,
유아 미디어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등을 추진하여 디지털시대를 살아가는 영유아들의 미디어 이용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을 수행하였습니다.

영유아보육기관 아이돌봄서비스 연계방안 연구, 에듀테크를 활용한 영유아 교사 전문성 연구,
학부모 안심유치원 정책성과 연구 등 육아지원기관에 대한 연구도 진행하였으며, 청소년 산모 의료지원 연구,
산모건강증진센터 타당성 조사 등 의료관련 분야로 연구주제를 확대하였습니다.

양육비용, 국제연구, 양육환경에 대한 연구, 패널연구는 지속성이 중요한 연구로 판단하여
연속과제로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육아정책 현안에 대한 현장 전문가, 학계,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육아정책 심포지엄, 육아정책생태계포럼,
KICCE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정책 이슈에 다각적인 대응을 하였으며,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한
육아정책포럼, 이슈페이퍼, 영상보고서, 카드뉴스 등을 발간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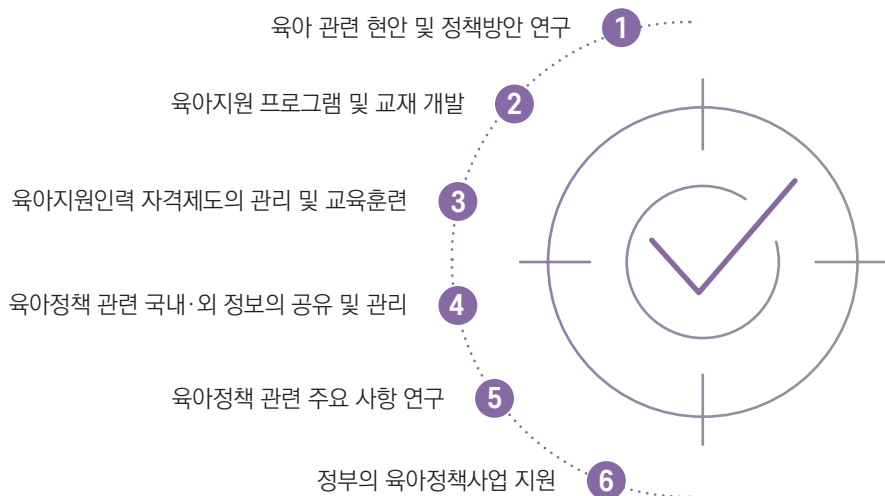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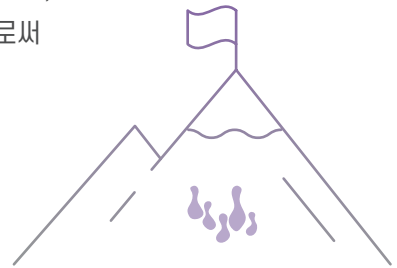
앞으로도 육아정책연구소의 연구 성과와 향후 추진될 연구에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육아정책연구소는
유아교육과 보육, 육아지원 정책연구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국내 유일의 국책연구기관으로
한국 육아정책의 Think Tank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연구소 소개

- 설립목적
- 주요기능
- 경영목표
 - 연혁
 - 조직도
- 일반현황

국가인적자원 육성을 위한 육아정책 연구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유아교육과 보육의 협력적 발전을 위한 합리적 정책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육아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기여



설립목적

종합적 육아정책연구를 통한
우리나라 육아선진국 도약에 기여



비전

미래인재의 행복한 성장을 위한
육아정책연구의 허브

중장기 발전목표

아동의 행복한
성장을 위한
미래지향적
정책연구 선도

국내외 의제에
대응하는 육아정책
연구의 플랫폼
실현

포용적
경영혁신을
통한 기관 위상
제고

[경영목표] 추진전략

아동의 행복한 성장을 위한
미래지향적 정책연구 선도

- 아동 권리와 생애주기에 기반한 연구영역 확장
- 미래대응 유아교육·보육의 협력과 발전을 위한 선도적 정책 연구 강화
- 육아친화적 가정 및 사회 조성을 위한 연구 주도
- 정책화 기여도 제고를 위한 연구사업 관리 체계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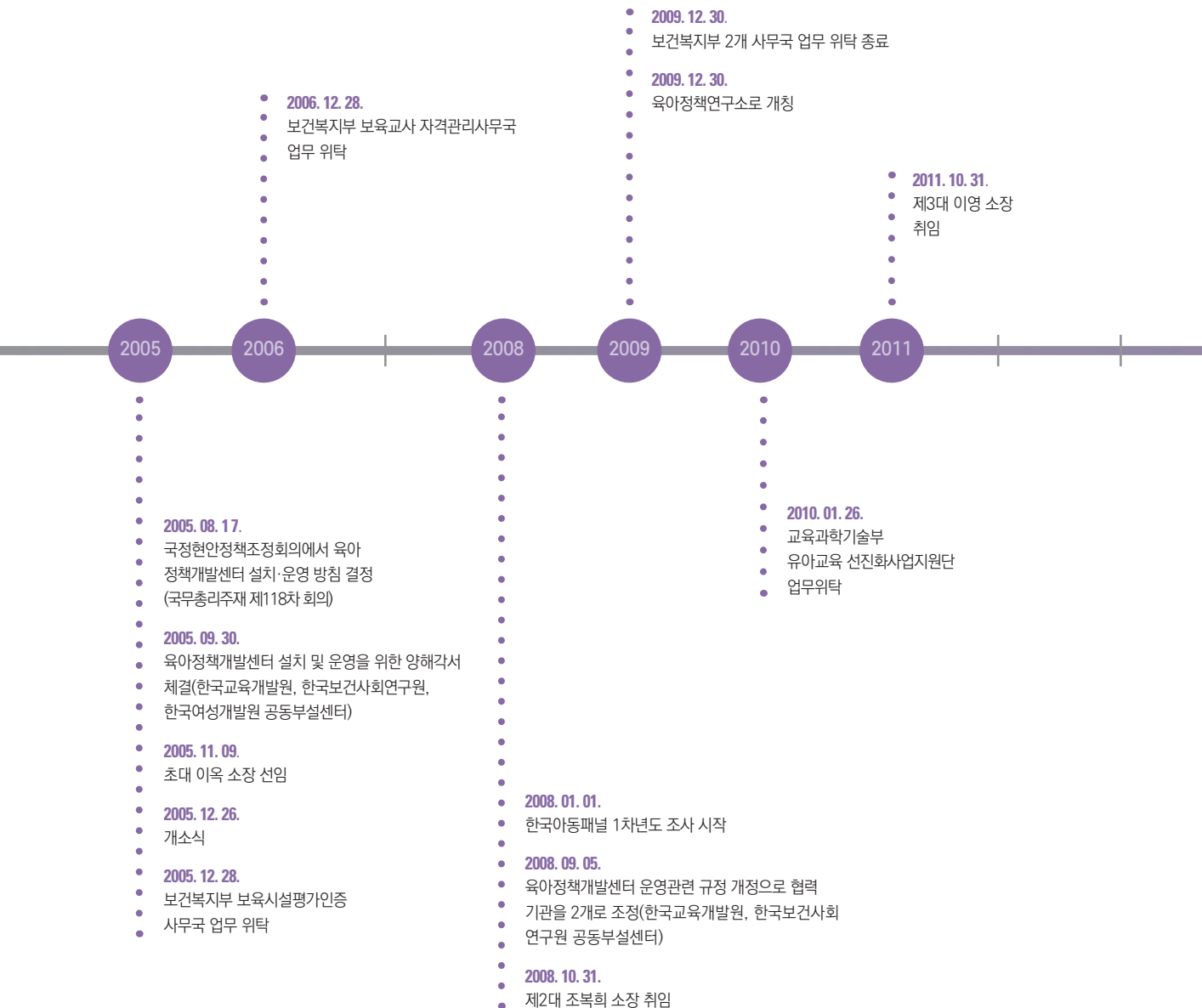
국내외 의제에 대응하는
육아정책연구의 플랫폼 실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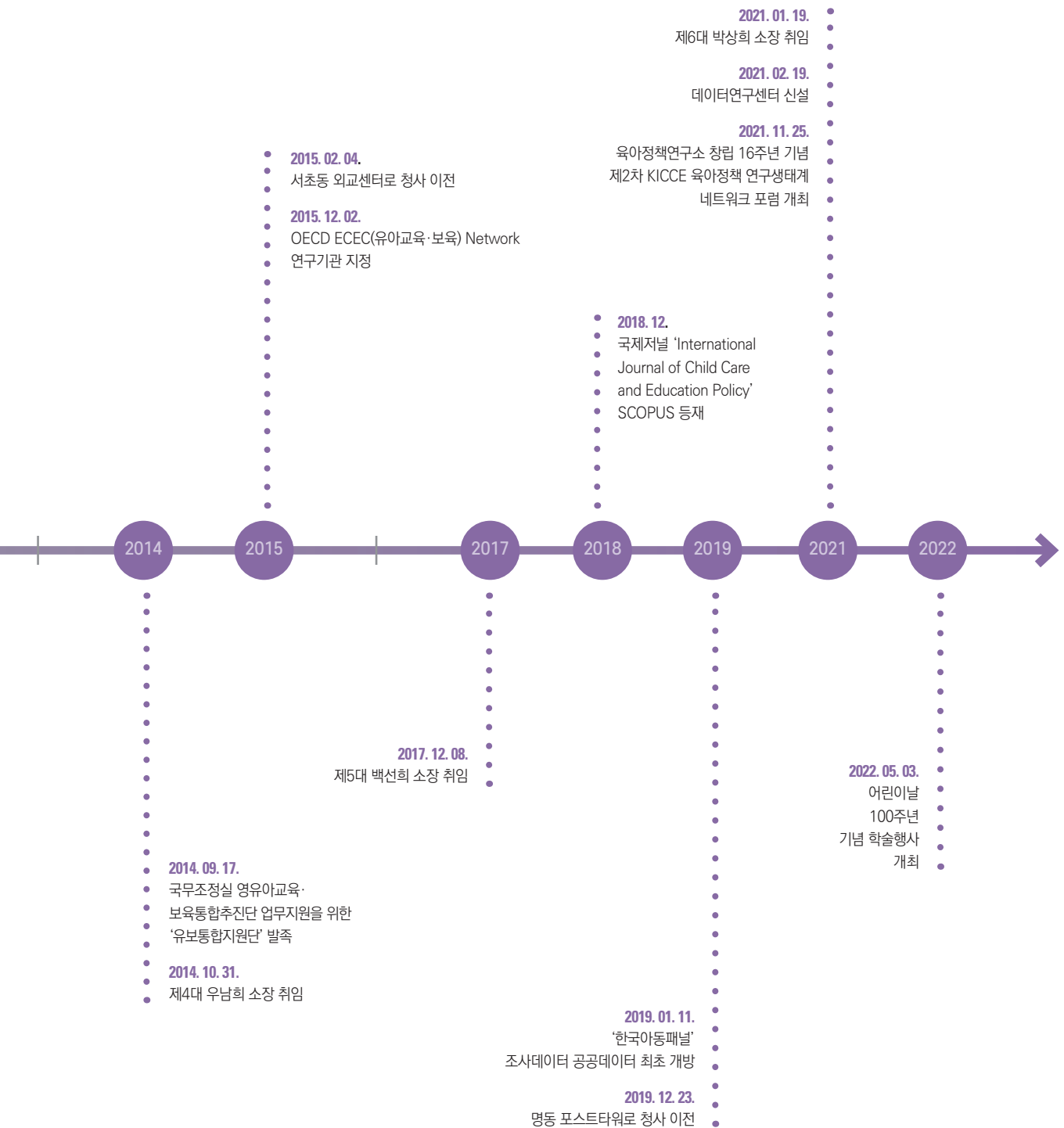
- 포스트코로나 대응 국내·외 육아정책 플랫폼 활성화
- 정책수요자와의 소통 강화 및 성과공유 다각화
- 학제 간 융합과 협력을 통한 육아정책연구생태계 조성

포용적 경영혁신을 통한
기관 위상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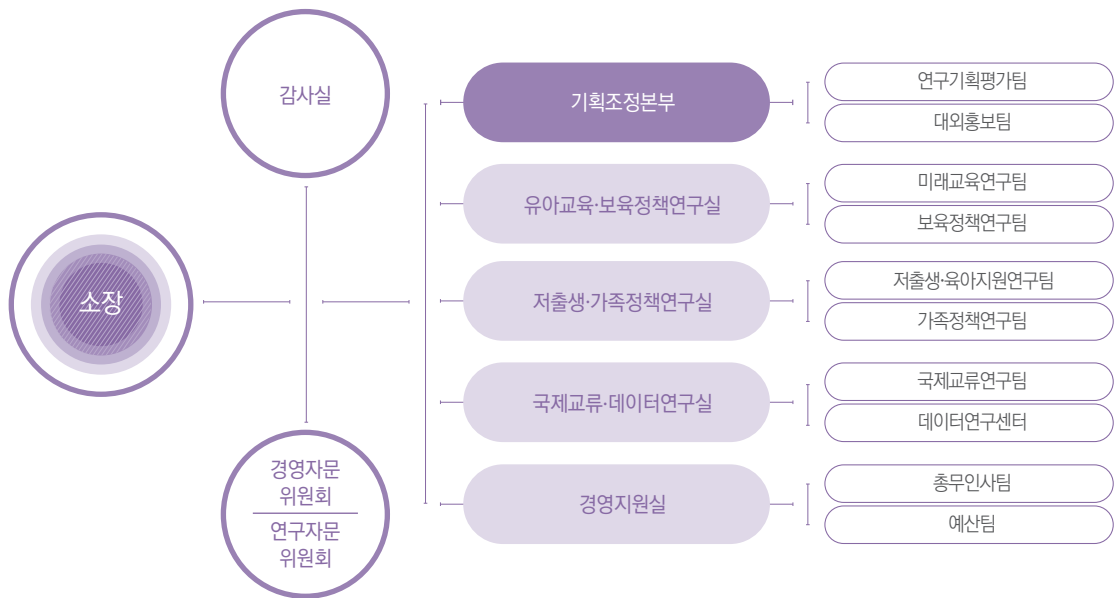
- 법인화 추진과 인권·윤리경영 강화
-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포용적 조직문화 강화
- 경영혁신을 통한 조직관리 효율화

육아정책의 발전과 영유아의 행복을 위해 지난 17년간 힘차게 내딛어온 걸음,
국가미래를 향한 도약은 계속될 것입니다.





연구역량 강화와 효율적인 연구지원 시스템 구축을 통한 연구성과 극대화를 위하여
육아정책연구소는 **1본부, 4실, 9팀, 1센터**로 구성·운영되고 있습니다.



경영자문위원회

길홍근 교수(전 경사연 사무총장)
김정학 교수(고려대 정책대학원)
신동욱 변호사(법무법인 대호)
이영환 교수(계명대학교)
이주복 노무사(하이에치알 노무법인)

*가나다 순

연구자문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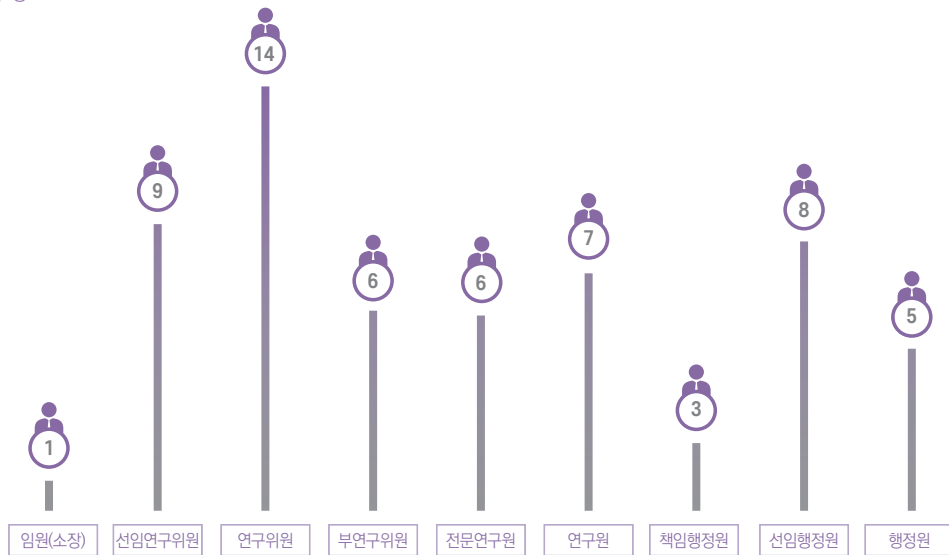
권혜진(한국보육지원학회장)
김진석(한국아동복지학회장)
도미향(한국부모교육학회장)
박경숙(한국가족학회장)
손인숙(한국모자보건학회장)
이병래(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장)

이완정(한국아동학회장)
정정희(한국유아교육학회장)
조형숙(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장)
최일선(한국육아지원학회장)
한유미(한국아동권리학회장)

*가나다 순

인원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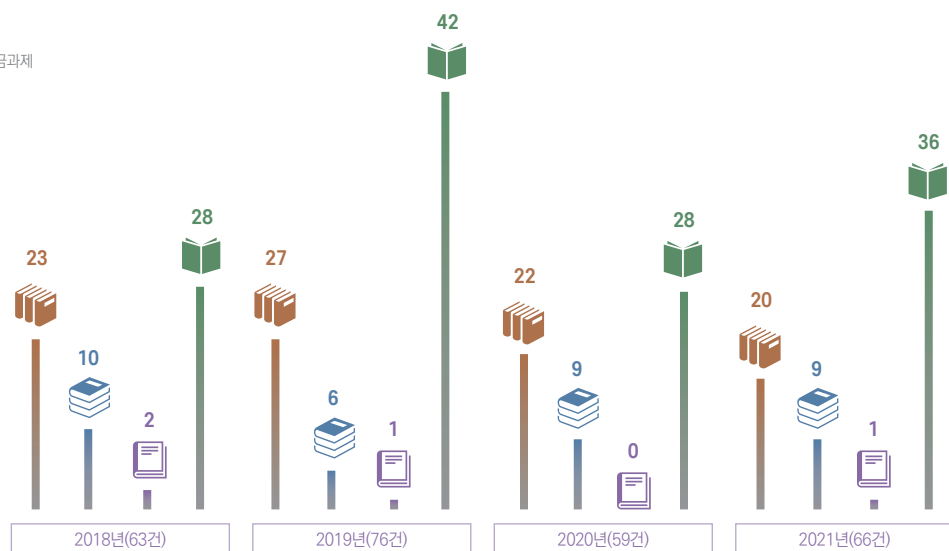
*전체 59명 | 단위: 명



연구현황

*연구시작일 기준 | 단위: 건

- 기본연구과제
- 수시연구과제
- 연구개발적립금과제
- 수탁연구과제



국가 육아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육아정책연구소는
유아교육·보육 관련 기본, 일반, 협동, 수시,
연구개발적립금, 수탁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주요연구

- 기본연구
- 일반연구
- 수시연구
- 연구개발적립금연구

2022-2027 유아교육·보육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문무경, 양미선, 송기창, 김문정

배경 및 목적

- 본 연구는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정부의 유아교육과 보육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지원하고자 수행됨.
- 그간 유아교육과 보육 중장기 발전방안은 현재의 이원화체제에 기초하여 각각 별도로 수립되어 종합적, 통합적 관점에서 중장기 발전 방향과 정책 과제 제시 및 국가정책 수립에 기여하는데 한계가 있음.
- 지난 정부의 주요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검토하고 다양한 관계자의 의견과 요구를 파악·수렴함으로써, 향후 정책 방향성을 도출하고 향후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공통과제와 유아교육과 보육 부문별 세부 정책과제와 누리과정 소요예산을 제시하고자 함.

연구방법

- 학계전문가 의견조사: 총 56명 참여(유아교육 전문가 29명과 보육 전문가 27명)
- 시·도청과 시·도교육청 담당공무원 조사: 17개 시·도청과 시·도교육청 담당공무원(과장, 보육팀장, 장학관 중심)
- 대국민 설문조사: 전국 17개 시·도 인구수에 비례하여 세대별, 성별로 표집(총 3,115명, 출생부터 초등 1학년 자녀를 둔 부모 1,001명, 미혼 약 1,000여명 포함)
- 권역별 정책토론회 개최: 4개 권역별(수도권, 충청권, 경상권, 전라권)로 각 20명씩 약 80여명, 향후 유아교육과 보육 중장기 발전방안 핵심과제 및 세부과제(안)에 대한 의견 수렴

연구결과

- 지난 4년간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의 성과와 한계
 - 문재인 정부의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의 가장 대표적인 성과는 한시적이거나 누리과정 지원비를 22년도말까지 재정, 확보 및 국공립시설 확충, 모든 0~7세 아동수당 지급, 유아놀이중심으로 누리과정 개정 및 다양한 연수, 포털 구축으로 현장 안착 지원 등을 포함
 - 정책 실행의 한계로는 서비스 유형에 따른 질적 격차 해소 미흡, 보육교사 자격기준, 양성체계 미정비, 처우 개선 미흡, 방과후 과정 운영 내실화 미비, 높은 교사 대 영유아 비율 등임.
- 향후 유아교육과 보육 발전 방향과 정책과제 관련 의견 분석



- 공무원들과 학계전문가, 일반국민과 영유아부모 모두 취학전 아동 수 감소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변화로 응답함.
- 영유아기에 우선적으로 함양해야 할 능력과 기술로 신체건강을 가장 많이 응답함. 공무원들은 신체건강과 기본 생활습관을 학계전문가들은 정서·감정 조절능력을, 영유아부모와 일반국민들은 정서감정조절 능력과 창의성을 상대적으로 중시함.
- 향후 5년간(2022~2027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정책주제로 학계전문가들은 약 56%가 유아교육과 보육의 격차 해소 체제통합을 응답, 반면, 공무원은 무상 유아교육과 보육의 완성은 가장 많이 응답함.

정책 제언

- 향후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의 방향성
 - 영유아의 웰빙과 건강한 성장을 최우선, 영유아 주도와 참여를 강조한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 제고, 포용적 공생 사회를 위한 생애초기부터 통합교육 강화, 틈새없는 돌봄서비스 체계 마련 및 부모의 자녀양육 지원 강화, 지역 균형 발전
- 유아교육과 보육의 공통적 과제
 - 무상 유아교육과 보육의 완성, 만5세 무상교육 실시를 통한 단계적 공교육화(누리과정 지원단가 현실화), 교육과 돌봄을 함께 하는 유보체제 통합(유보통합추진위원회 구성 및 마스터 플랜 담당, 미래형 영유아교원 자격기준 및 양성체제 통합 등), 유아교육과 보육 서비스의 질 제고(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감소, 개정 누리과정 교원 연수체제 혁신, 안전하고 창의적인 환경 제공)
- 개별적 핵심과제
 - 유아교육: 무상 방과후 과정 운영 내실화(운영시간, 방과후 강사 배치기준 등), 공사립유치원 균형 발전
 - 보육: 0~2세 영아 대상 서비스의 질 제고 및 담당인력의 전문성, 어린이집과 초등학교와의 연계 강화
- 누리과정 소요 재정 추계
 -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비·보육료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3만원씩, 2027년에는 2만원씩 인상, 2027년에 40만원을 달성, 방과후과정 교육비는 2023년에 3만원 인상하여 10만원을 달성하는 것으로 목표 설정

양육지원정책 중장기 재정 추계 및 분담구조 개선 연구

김동훈, 최효미, 홍근석, 김태우

배경 및 목적

- 양육지원정책의 재정추계를 위한 모형설정 및 시나리오에 따라 양육지원정책의 중장기 재정소요를 추계함.
-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양육지원정책에 대한 재정확보 방안과 중앙과 지방정부의 재정분담 구조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연구방법

- 문헌분석
 - 양육지원정책 관련 개념, 범위 등을 설정하기 위해 선행연구 등을 고찰
 - 국내·외 양육지원정책 재정지원 관련 법·제도, 통계, 정책개요, 재정조달, 지원 현황 등 수집
- 전문가 회의 및 의견수렴
 - 양육지원 정책 대상 및 범위를 설정, 재정추계모형 설정과 시나리오 구성, 재정분담 개선방안 도출
- 공동학술대회 개최
 - 유아교육재정 재정추계 결과 및 재정분담 학술대회 공동 개최

연구결과

- 저출산 대응과 복지 강화측면에서 다양한 현금과 서비스 지원이 강화되면서 양육지원 관련 재정규모가 상당히 커짐.
 - 향후 5년간 영아수당, 아동수당, 보육료, 누리과정지원 등 사업의 총 소요재정은 58조 2,137억원으로 추계됨.
 - 영유아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영아수당 도입, 아동수당 확대, 보육료 및 누리과정비 인상의 요구 등으로, 향후 재정소요액은 현행보다 최저 5조 9,587억원에서 최고 18조 6,54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아동·보육부문 예산은 사회복지 분야 예산의 17.54% 수준이며, 아동·보육 부문 세부사업 중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 아동수당 지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 등 4개 사업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함.
- 양육지원정책은 대부분 사회복지 분야 예산으로 국고보조금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전되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이 재원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국고보조금과 대응지방비가 기준보조율에 따라 정해져, 양육지원정책 국고보조금 사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지방의 지방비 절대 부담금액도 비례하여 증가함.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한시적으로 설치하여 한시적으로 누리과정 재정분담 갈등이 봉합된 상황이나, 장기적으로 누리과정 지원 재정분담의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정책 제언

- 누리과정을 재외한 제외한 양육지원사업은 국고보조금 형태로 지방비 매칭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라 중앙뿐만 아니라 지자체에도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될 여지가 있어, 안정적 자원 마련이 필요해 보임.
- 보육관련 양육지원정책 사업 기준보조율 조정 검토 필요
- 국고보조사업 성격에 따른 일부사업의 지방이양 추진 필요
 - 영유아보육료, 양육수당, 아동수당과 같은 현금성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 기준보조율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장기적으로는 중앙정부가 모두 부담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어린이집 지원이나 각종 돌봄지원과 같은 서비스 지원 사업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지원·운영하도록 지방이양할 필요가 있음.
- 안정적 세입을 위한 누리과정 자원 부담 비율 명확화 필요
 - 유아교육지원특별법에서는 세입을 교육세와 국고 전입금으로 한다라고만 되어 있어, 향후 재원분담비율 등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일몰기한 폐지
 - 저출생 심화, 출생선 평등 등 누리과정 지원정책의 의미를 살리고, 누리과정을 둘러싼 부처간, 지자체간,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갈등 등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일몰기한을 폐지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영유아 인구 희소 농어촌 지역 보육·교육 서비스 통합 지원 방안 연구

양미선, 이윤진, 한재희, 장혜진, 정도영

배경 및 목적

- 인구 감소로 인하여 영유아 인구가 적은 농어촌 지역의 보육과 교육 서비스 지원 현황을 살펴보고, 유아교육과 보육 서비스 통합 지원 방안을 모색

연구방법

- 농어촌 지역 교육보육 서비스 지원 관련 법 및 제도 및 관련 선행연구, 인구 동향 및 보육교육 통계 자료 수집·정리
- 농어촌 소재 어린이집·유치원의 기관 운영 현황과 요구 파악을 위한 조사 실시
- 「농어촌 어린이집 통합지원」 시범사업 모델 개발 및 사업 실시
- 간담회 및 자문회의 개최

연구결과

- 농어촌 어린이집 운영 현황과 요구
 - 조사 참여 어린이집 중 309개소(1,516개반)가 영아반 운영 중이며 이중 59.5%가 특례를 적용함. 유아반 운영 어린이집 221개소(549개반)이며, 이중 농어촌 특례 탄력보육반은 65.0%임.
 - 조사 참여 어린이집 중 81.8%가 연장보육을, 16.7%가 야간연장보육을 운영 중임. 연장보육반은 0세반 0.4개, 영아반 1.2개, 유아반 0.6개 반이고, 전체 평균 2.2개반을 운영함.
 - 어린이집 중 79.3%가 등하원 차량을 운영하고 차량수는 평균 1.3대임.
 - 어린이집 재직 교사의 평균 호봉은 10.1호봉이고 호봉이 가장 높은 교사는 평균 17.4호봉임. 농어촌 소재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수급이 어려운 이유 중 접근성의 문제가 가장 큼. 어린이집 교사 중 자차 90.3%, 6.2%는 대중교통, 3.5%는 기타임.
 - 어린이집 재정 운영 시 가장 부담 되는 항목 1,2순위를 조사한 결과, 인건비 85.8%, 시설관리비 42.6%, 차량구입비 28.2%, 급간식비 16.5% 순임.
 - 농어촌 보육서비스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인건비 지원을 개선 38.2%, 반당 인건비 지원 기준 개선 33.4%, 교사대야동비율 개선 12.5%, 어린이집 운영비 추가 지원 6.5%, 농어촌 탄력보육 특례 개선 3.2% 순임.
- 농어촌 유치원 운영 현황과 요구
 - 유치원 중 99.4%가 방과후과정을 운영하고, 학급 수는 전체 평균 2.2학급임.
 - 돌봄교실 운영 유치원은 35.9%이고, 유형별로는 방학돌봄 44.4%, 온종일돌봄이 38.1%, 저녁돌봄 19.0%, 아침돌봄 7.1%임. 돌봄교실 운영하지 않은 이유로, 돌봄서비스 이용 수요가 없다 79.6%, 전담교사 구하지 못해서 7.6%, 운영비 지원받지 못해서가 3.1%임.



- 유치원 중 72.6%가 통학차량 운행하고, 통학차량 수는 평균 1.5대임.
- 조사에 참여한 유치원 교사의 평균 호봉은 11.8호봉이고, 가장 높은 호봉은 19.3호봉임. 유치원 교사의 출퇴근 수단은 자차 91.2%, 대중교통 5.4%, 기타 3.4%임.
- 농어촌 교육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1,2순위로, 학급당 유아 수 개선 49.9%, 시설환경개선비 지원 확대 40.2%, 인건비 지원 30.2%, 차량운영비 지원 확대 27.1%임.
- 농어촌 어린이집 통합 지원 시범사업
 - 강원, 충북, 전남 3개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연구 협력을 체결하여 2021년 8월부터 10월 30일까지 3개월 간 사업을 진행함.
 - 사업모델은 단독형, 혼합형, 거점형, 통합형으로 총 4개 유형을 설정하여 운영관리, 교직원 관리, 프로그램 관리, 부모 지원 및 지역 사회 연계 등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추진
 - 사업 성과: 동일한 어려움 겪고 있는 어린이집 원장 간의 정서적 연대감 형성 계기 마련, 보육교사들에게 정부나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농어촌 보육교사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과 상호작용 컨설팅, 교사학습공동체 등의 참여로 사기를 높일 수 있는 기회, 어린이집 간 정보,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 운영 노하우 등 공유할 수 있는 교류의 장 마련

정책 제언

- 농어촌 어린이집 지원 방안
 - 농어촌 지역 특성에 적합한 국공립어린이집 정책을추진
 -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운영비(인건비) 지원
 - 농어촌 지역 정부지원 시설 인건비 지원기준(반당 정원총족률 50%) 완화
 - 농어촌 소재 보육교직원 수급 문제 해결
 - 비담임교사, 순회교사 제도 도입: 대체교사 지원 문제 해결
- 농어촌 유치원 지원 방안
 - 지역별 공립 단병설 유치원 재구조화
 - 유-초중등학교 적정 규모화
 - 농어촌 사립유치원의 매입형 국공립유치원 선정기준 완화
 - 농어촌 유치원의 교육의 질 개선 위한 지원
- 농어촌 어린이집 통합지원 사업 활성화 방안
 - 중앙정부가 2021년 추진한 '다(多)가치 보육' 협력사업'과 연계하여 사업 확대 필요
 - 그룹별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위한 사업운영비 지원 확대
 - 사업 참여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사업 참여에 따른 수당 별도 지원
 - 농어촌 어린이집 통합 지원 사업 참여 어린이집에 인센티브 지원
 - 농어촌 어린이집 통합지원 사업 우수사례 공유 및 홍보 강화

포스트코로나 시대 양육지원체계 재구조화 연구

최윤경, 김근진, 정익중, 최영, 송신영

배경 및 목적

-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재난상황에서 현재의 양육지원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지점을 파악하고, 포스트코로나 육아분야 미래 대응을 위한 중장기 과제와 양육지원체계의 방향성을 모색
- 일상 및 재난 상황의 양육지원체계 점검과 서비스-시간-현금 지원 간 정합성 및 교육-보육-돌봄 운영의 제고

연구방법

- 문헌연구: 코로나19 관련 선행연구 고찰
- 양육지원체계 전문가 및 수요자/종사자 면담(FGI)
- 설문조사: 0~9세 자녀를 둔 부모, 어린이집·유치원 및 아동양육시설, 청년 대상 설문조사 실시
- 정책연구실무협의회, 정책토론회 개최

연구결과

- 위드코로나 쟁점 및 포스트코로나 어젠다 분석
 - 팬데믹이 드러낸 육아분야 쟁점(문제점, 사각지대): 돌봄공백, 교육·보육·돌봄 기관 휴원 및 긴급돌봄체계
 - 포스트코로나 육아분야 미래 어젠다: 기후변화에의 대응, Digitalization, 초 저출생 심화, 웰빙/역량 중심 접근
- 아동 교육·보육·돌봄의 팬데믹 대응 현황 및 개선 요구 분석
 - 코로나19 방역체계
 - 유치원과 어린이집 대응체계 차이와 효율성
 - 긴급돌봄체계 점검 및 재난대응 시스템 제고
 - 아동양육시설 아동의 아동권과 돌봄 및 삶의 질 측면의 팬데믹 대응방식 점검과 공간/설비 운영의 선진화
 - 아동발달에 대한 회복/중재(Recovery, Resilience) 대응 필요
 - 일상-재난 상황의 양육지원체계 개선, 취약계층 지원 및 아동보호체계 강화
 - 온-오프라인 교육·보육·돌봄 과정 운영 체계와 지침의 필요성
 - 청년세대의 미래 가족과 출산, 자녀양육에 대한 의향 감소세. 청년세대의 웰빙/역량을 증진하는 생애주기 접 과 육아정책-청년정책 연계



정책 제언

- 양육지원체계 재구조화 방안①: 재난상황의 양육지원체계 개선
 - 어린이집·유치원 대응체계 개선: 인력, 시설설비/공간 운영, 교육·보육·돌봄 서비스 운영과 서비스 간 연계,
- 재난상황의 긴급지원체계, 긴급돌봄과 교육·보육 과정 운영, 지속가능한 아동돌봄체계 구축
 - 고용·노동 특성을 고려한 시간-비용-서비스 지원: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 비대면 온라인사회, 빈곤 예방을 위한 아동중심 소득보장 제도, 유연한 노동·돌봄 지원체계(돌봄휴가-소득지원대책), 가정정보보호체계,
- 긴급돌봄에 대한 대응력 제고와 긴급돌봄체계 구축
 - 사각지대 해소 방안: 위기아동 발굴 시스템 개선- e 아동행복지원시스템 선제적 맞춤형 정보 구축, 미취학 위기 아동 발굴을 위한 전수조사 및 보편적 가정방문체계, 아동보호 구심점으로서 학교기능 강화와 지역사회 연계, 과학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아동돌봄서비스 도입
- 양육지원체계 재구조화 방안②: 포스트코로나 육아분야 미래대응 전략
 - 저출생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육아정책 대응 정비
 - : 재난 대응력/회복력 제고, 긴급 교육-돌봄체계 마련과 연계
 - 포스트코로나 육아분야 미래대응 전략
 - : 국가수준 교육과정 운영 다변화와 아동·부모 관점의 연속성 확보, 확장된 지원체계-포괄적 육아종합지원체계,
- 비용-서비스-시간 지원의 정합성 제고 및 비용지원체계 개선, 교육-보육-돌봄 및 보호의 통합적 접근과
- 연계, 교육·돌봄 인력의 국가자격체계(National Qualification System) 통합적 접근 필요

영유아 보육·교육기관과 아이돌봄서비스의 효율적 연계방안 연구

유해미, 박진아, 엄지원

배경 및 목적

-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의 보편적 이용에도 영유아자녀의 돌봄 공백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적 부문의 아이돌봄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함.
- 돌봄 공백을 틈새보육과 긴급보육으로 구분하고,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이용가구의 아이돌봄서비스 연계방안을 도출함.

연구방법

- 아이돌봄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상황과 서비스 연계 시 애로사항 및 지원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유치원 이용가구 502 사례(30.9%)와 어린이집 이용가구 1,121사례(69.1%)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의 필요도 및 지원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원장 각 8인씩 총 16인과 시·군·구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실무자 총 8인을 의견조사를 실시함.

연구결과

- 수요자 측면: 자녀돌봄의 돌봄의 공백과 서비스 연계의 필요도 인식
 - 현재 이용 중인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이 주중(월~금)의 보육 수요를 충족 여부에 대해서는 '필요한 시간보다 부족하게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30.6%임.
 - 주중 추가보육 필요시간대는 7시 30분~8시, 8시~8시 30분이 공히 23.7%로 가장 높은 수요를 보이며, 16시 30분~19시는 30% 선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됨.
 -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이용가구에서 '자녀를 맡길 데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9.2%임.
 -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이용가구에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의 필요도를 5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코로나19로 인한 기관의 강제휴원 시 평균 3.93점, 부모가 아픈 경우 3.87점, 직장에서 갑자기 야근해야 하는 경우 3.85점, 일상적으로 늦은 퇴근(19시 30분 이후) 3.80점, 추가자녀를 출산한 경우 3.80점 순으로 나타남.
 -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이용가구에서 선호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신청 및 방법에 관한 정보를 얻는 방법으로 1순위 응답률 기준으로 '이용기관에서 정기적으로 부모 대상 공지'가 39.4%(1+2순위 응답률 53.6%)로 가장 선호됨.



- 공급자 측면: 서비스 연계의 어려움과 지원요구
 -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서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시 애로사항으로는 1) 아이돌보미 즉시연계의 어려움, 2) 아이돌보미에 대한 부모 인식 부족, 3) 아이돌봄서비스 질에 대한 우려, 4) 서비스 연계체계의 미흡, 5) 서비스 이용 편의성 낮음, 6) 서비스 내용을 잘 모름 등으로 조사됨.
 -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의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시 필요사항으로는 1) 적극적인 사업 홍보(TV 등 대국민 홍보 강화 포함) 2) 기관의 서비스 연계 방식 구체화(지침에 가정통신문 안내 명시)와 서비스 연계 활성화를 위한 유인책 마련(평가인증 등 평가 시 지역사회 연계 항목 포함 등), 3) 서비스 연계 시스템 구축, 4) 공통 적용기준의 정교화(아동의 투약, 활동 중 사고 발생 등 유의사항, 아동인계 절차 등), 5) 기관 간의 업무협약 등이 제기됨.

정책 제언

- 영유아 보육·교육기관과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의 목표는 ‘기관보육이 운영되지 않거나 또는 긴급한 돌봄 공백 상황에의 대응’임.
- 주요 전략으로는 아이돌봄서비스 연계를 위한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의 정교화, 아이돌봄서비스 연계를 위한 통합적 돌봄지원체계 구축, 돌봄 공백 유형별로 차별화된 서비스 연계체계의 구축을 제시함.
- 선결과제로는 어린이집/유치원의 돌봄서비스 운영 내실화와 아이돌봄서비스의 부모 신뢰도 제고가 요구됨.
- 서비스 연계를 위한 통합적 돌봄지원체계의 구축 방안으로 1) 서비스 연계 관련 협력체계(가칭: ‘아이돌봄 협의기구’의 설치·운영 등) 구축, 2) 원스톱 돌봄서비스 신청 및 통합업무관리시스템의 구축, 아이돌봄서비스 정보 접근성 제고(영유아 부모/어린이집·유치원), 아이돌봄서비스 전·후 아동인계의 안전관리 강화, 안전사고 관리 및 보고 체계 등 일원화를 추진함.
- 틈새보육의 우선연계 필요대상은 야간/주말근로/교대제근로가구, 영아자녀, 다자녀가구임.
- 일반적 긴급보육 지원을 위한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접근성 제고 방안으로 서비스 신청 채널의 다양화, 서비스 이용안내와 준수사항의 공지, 아이돌보미 등록 정보 보완, 서비스 이용비용의 실시간 확인 등을 제안함.
-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해당 규정을 일원화함.
- 재난 시 긴급보육을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방안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여성가족부에 관련 협조를 요청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긴급보육 기간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에 대한 정보를 하달하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 기관연계서비스 접근성 보장을 위해 지원대상을 명료화하고, 적정 업무분장을 위해 아이돌보미의 역할을 명시함.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 적정화를 위한 정책 방안 연구

이정원, 박원순, 엄지원

배경 및 목적

- 미디어 이용 연령의 하향화,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 보편화에 따라 영유아의 적절한 미디어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과 지원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됨.
- 가정과 보육·교육기관에서 영유아의 올바른 미디어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함.

연구방법

- 전국의 영유아 부모 1,500명, 어린이집과 유치원 담임교사 508명 대상으로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 및 활용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 문헌연구, 영유아 부모 12사례에 대한 심층면담, 자문회의 개최, 정책세미나 개최

연구결과

- 영유아 가정은 다양한 미디어 기기를 보유함.
 - 대부분의 영유아 가정은 스마트폰(99.6%), TV(94.3%), PC(90.7%)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외 태블릿PC(74.4%), AIS피커, 게임콘솔, 교육용 단말기, 전자책단말기, VR기기 등 보유 미디어가 다양화되고 있음.
 - 영유아는 특히 가정 내 보유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동영상 시청에 최적화된 태블릿PC 이용에 주의가 필요함.
 - 성인의 미디어 이용에 바람직하지 못한 습관이 발견됨.
 - 많은 성인들이 식사 중, 잠자기 전, 운전 중에도 미디어를 이용하며, 누워서 사용하거나 여러 미디어를 동시에 사용하는 등의 미디어 이용 습관을 보여 영유아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미디어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우려됨.
 - 가정에서의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
 - 스마트폰의 최초 보유시기는 평균 3.6세이며, 영아기부터 스마트폰 및 태블릿PC를 이용하기 시작한 경우가 69.2%에 달하며 주중에서 일평균 55.3분, 주말에는 97.6분 이용함. 주된 이용 용도는 동영상 시청(85.9%)임.
 - 코로나19로 인해 영유아의 미디어 기기 이용이 증가함(66.8%).
- 가정에서의 영유아 미디어 지도 실태
- 부모들은 스마트폰이나 TV 등의 미디어를 영유아 자녀를 공공장소에서 조용히 시키거나, 보호자의 일(가사, 업무 등)에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 자녀에 대한 보상용도 등 도구적으로 이용하는 경향이 있음.



-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은 보호자의 허락을 받아 이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66.9%), 보호자가 있는 공간에서만 영유아에게 미디어 이용을 허락하는 경우가 많음(76.5%)
- 국가에서 개발한 미디어 이용 지도 가이드라인의 인지도와 활용도는 매우 낮은 수준임.
- 영유아 미디어 이용 지도를 위한 부모교육 경험이 매우 낮으나 향후 교육을 받고자 하는 수요는 매우 높음.
- 보육·교육기관에서의 영유아 미디어 활용 및 지도 실태
 - 기관은 PC(92.5%), TV(79.9%), 빔프로젝터(54.5%), 태블릿PC(26.2%) 등 다양한 미디어 기기를 보유하고 정규 수업시간에 활용하고 있음. 기관에서는 TV(84.5%)를 가장 많이 활용하며, 태블릿PC는 보유 대비 활용도가 높은 기기로 나타남. 영유아 연령이 높아질수록 미디어 기기 활용률이 높게 나타남.
 - 연령별 권장 시간 내 이용 시간 제한이 기관에서의 가장 보편적인 미디어 이용 지도 형태임. 영유아 미디어 이용 지도 가이드라인의 인지도는 16.9%로 낮음.
- 영유아 미디어 이용 지도를 위한 교사교육 경험은 70.3%로 비교적 높고 향후에도 65.8%가 교육을 희망함.
 - 기관에서 실시한 미디어 교육은 부모보다는(27.8%) 영유아를 대상으로(54.3%) 실시된 경우가 많음.
- 가정에서는 20.1%가 영유아의 미디어 과의존을 의심한 경험이 있고, 기관에서는 31.7%가 재원아 중 미디어 과의존이 의심되는 경우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의 진단이나 상담, 치료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 경우는 많지 않음.

정책 제언

- '변화하는 영유아 미디어 환경에 대한 대응'과 '적절한 미디어 환경 조성을 정책 방향'으로 제안함.
- 부모 및 보육·교육 기관 교직원 대상의 영유아 미디어 이용 지도 교육 강화, 보육·교육 활동에서의 미디어 이용 지침의 개발·배포, 영유아 미디어 이용 지도 가이드라인의 활용도 제고, 영유아용 미디어 콘텐츠 적합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제안함.

에듀테크 활용을 통한 영유아교사 전문성 제고 방안

박창현, 조숙인, 정영식, 윤지연

배경 및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원격수업 및 에듀테크 기술 활용을 통해 효과적인 영유아교사 전문성 개발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영유아교사 관련 정책 수립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는 것임.

연구방법

- 관련 통계, 관련 정책과 제도, 법령 및 선행연구 등을 수집하여 분석
- 집단 및 개별 심층면담을 실시하고 국내외 사례 및 시사점 분석
- 전국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 약 1,000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원격수업에 대한 현황과 요구, 에듀테크 기술에 대한 정책 요구를 파악하고 시사점 도출
- 유아교육, 보육, 행정, ICT 관련 전문가 등 약 100명의 전문가 대상 전문가 델파이 조사 2회 실시
- 관련 전문가, 유아교육 및 보육 전문가, 부처 담당 공무원 대상 자문회의 및 정책연구실무협의회 실시
- 연구결과를 확산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정책 토론회를 개최

연구결과

- 원격수업 및 에듀테크 활용 교사 전문성 교육의 실태
 - 기관의 무선 인터넷 환경에 대하여 전체 교사의 35.5%가 '매우 열악'하거나 '열악'하다고 응답
 - 에듀테크 관련 교사 전문성 교육의 문제점에 대하여 전체 교사의 44.0%가 '교사 업무부담이 많음'에 응답
- 에듀테크 활용을 통한 교사 전문성 강화 정책의 방향
 - 교사가 고려해야 할 이슈로 전체 교사의 42.5%가 '유아, 놀이중심교육과의 접목'에 가장 높게 응답
 - 전체 교사의 65.9%가 원격수업 및 에듀테크 활용 교사교육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격차가 존재한다고 응답
 - 전체 교사의 71.9%가 에듀테크 활용 측면에서 장애/비장애 유아 간 격차가 존재한다고 인식
 - 접목 가능한 에듀테크 기술로 전체 교사의 25.4%가 '실감형 콘텐츠(안전체험학습 등 가능)', 22.1%는 '인공지능(교수학습평가 일체화, 개인 맞춤형 교육, 학습 심리분석 등 활용)', 18.9%는 '교육용 로봇(코딩 등 학습보조, 장애영유아활동 보조 등)', 11.5%는 '플랫폼 구축'으로 응답
 - 전체 교사의 43.3%가 '다양한 플랫폼(지역, 지자체 수준)의 총체적 운영 체계 구축'에 가장 많이 응답



정책 제언

[정책방향]

- 원격수업에 대한 교사 공감대 형성 필요, 원격수업 운영을 위한 정보 인프라 환경 지원, 격수업 운영 및 에듀테크를 활용한 교육과정 재구성 및 평가, 수업운영 기준 및 가이드라인 제공 필요, 유아교육 플랫폼 제공 및 콘텐츠 제작 가이드라인 제공, 예비교사단계에서 디지털 교육 역량 강화, 유아교육 데이터 관리체계 구축, 개인정보 관리체계 구축, 유-보 격차, 비장애/장애 차별없는 교육지원 체제 구축

[정책과제]

- 디지털 기본법 시행령에 영유아 안전성 조항 포함, 저작권법 개정 필요, 디지털 리터러시 조례 확대
- K-에듀 통합 플랫폼 구축에 유아 단계 포함: 놀이 및 영유아교사교육 플랫폼 구축 및 통합 지원
-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누리과정 개정, 에듀테크 접목, 장애영유아 지원
- 교사교육 및 지원 방안
 - 교사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강화와 함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교육 강화, 예비교사 교육은 디지털 테크놀로지 활용 교수 설계 및 수업 관련 과목 신설 필요, 재교육은 워크숍 과정 포함, 온라인교육 노하우 공유, 교수학습 방법의 다양화 지원은 EBS 및 기업과의 협력강화, 지침제공, 연수 활성화 등
- 지원체계: 유아 에듀테크 핵심 기술 지원 강화
 - 다부문 연구개발팀 구축 및 R & D 개발 확대
 - 에듀테크 핵심기반 기술 지원 및 가이드라인 제공: 저작권 문제 해결 및 콘텐츠 개발 필요
 - 원격수업 운영 및 에듀테크 활용을 위한 정보 인프라 환경 지원: 전문가 파견 및 기술/설비 지원
 - 영유아를 위한 학부모 디지털 이해 교육 및 발달 연구 필요
- 유아교육 데이터 관리체계 구축 및 개인정보 관리체계 구축 지침 마련

다문화 영유아의 이중언어 발달을 위한 부모 역량강화 지원 방안

박은정, 문무경, 윤지연, 임동선, Weng-Feng Lai

배경 및 목적

- 2010년 이후 이중언어 지원사업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가족 내 이중언어 환경이 크게 개선되지 못함.
- 최근 이중언어 정책은 영유아기 부모보다는 학령기 아동에 대한 학습지원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음.
-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지원 서비스 및 정책을 진단하고, 다문화가족의 강점에 초점을 둔 다차원적 역량강화 관점에서 영유아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부모의 이중언어 양육 실태를 파악하여, 다문화 영유아의 이중언어 발달을 위한 부모의 역량강화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목적이 있음.

연구방법

- 문헌연구: 선행연구 검토, 통계자료 및 실태조사 결과 검토, 국내 이중언어 관련 지원 제도 분석, 해외 사례 분석
- 설문조사: 만 3세~만 6세 이하 미취학 자녀를 둔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531명을 대상으로 웹조사 실시
- 심층면담: 미취학 자녀를 둔 다문화 부모 30명(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20명, 한국인 배우자 10명)
- 전문가 의견 조사: 이중언어 관련 현장 전문가 42명을 대상으로 이메일 조사 실시
- 콜로키움 및 정책 세미나: 콜로키움 2회, 정책 세미나 1회 실시

연구결과

- 영유아 교육·보육 기관 및 교사 역할
 - 해외 사례(대만)에서 최근 유아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및 교사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음.
 - 이중언어 사용에 대한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안내 정도가 매우 미비하며 교사의 비지지적 태도가 이중언어 사용에 장애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콘텐츠 및 교재교구 개발
 - 이중언어 콘텐츠 개발을 활성화하고, 결과물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홍보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다문화 부모들은 모국어로 된 교재 부족을 경험하며, 교재 및 콘텐츠 제공에 대한 요구가 있음.
- 부모 및 가족 구성원 인식 개선
 - 이중언어에 대한 가족의 태도 변인은 자녀의 이중언어 사용에 주요한 영향요인임.
 - 전문가 의견 조사에서도 가족들의 부정적 인식을 이중언어 사용의 장애물로 가장 빈번히 지적됨.



- 실천적 부모교육 필요
 - 자녀의 이중언어 사용에 부모의 모국어 사용지지 및 기회제공 노력과 부모의 역할 효능감이 주요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남.
 - 부모들은 자녀의 발달단계별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교육받고자 하는 수요가 있음.
- 출신국별 지원 및 자조모임
 -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주의 아동 및 가족 통합기회(IfKuF)사업은 자조모임의 유용한 모델 제시함.
 - 이중언어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다수 요인에서 출신국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심층면담에서도 다문화 부모도 모국어를 활용할 수 있는 자조모임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지하고 있음.
- 접근성 제고 필요
 - 정보 접근성 및 서비스 접근성 문제에 대해 지적됨.
 - 해외 사례(대만)에서 온라인 활용을 통한 접근성 제고 모델을 확인함.
- 인력 및 사업의 전문성 강화
 - 부모의 이중언어 서비스 이용에서 주로 전문성이 고려됨.
 - 전문가 의견 조사에서 이중언어 관련 담당 인력의 전문성 제고와 사업 인력풀 확보가 강조됨.

정책 제언

- 다문화 영유아의 부모 역량강화를 위한 이중언어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 이중언어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제고, 생애초기(영유아기) 동시적 이중언어 습득 지원, 연계 체계 구축을 한 지원 내실화
- 정책과제
 - 협력적 이중언어 지원 사업 추진체계 구축, 다문화가족 및 교육·보육기관의 이중언어 인식 제고, 출신국별 자조모임 활성화 및 활용, 가정 내 이중언어 사용을 위한 맞춤형 이중언어 지원, 이중언어 사업 및 정보 접근성 제고, 이중언어 전문 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

유아놀이문화 확산을 위한 전통놀이 활용방안 연구

구자연, 김은영, 박은영

배경 및 목적

- 유아놀이문화 확산은 전 세대가 놀이의 가치와 중요성을 공유할 때 가능하기에 여러 세대를 아우르며 놀이의 가치와 재미를 공유하는 매개체로, 놀이 자원을 다양화하는 마중물로 전통놀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의 목적은 학술적 기초자료로 전통놀이를 수집하여 목록을 구축하는 것이며, 정책적 활용의 기초자료로 지역사회, 유아교육·보육기관, 가정에서의 전통놀이 활용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연구방법

- 전통놀이 목록화 작업
 - 문헌조사(전통놀이 수집), 전통놀이 수집·선정을 위한 협동연구체계 구성 및 협의회 운영
- 전통놀이 활용방안 도출
 - 문헌조사, 전통놀이 관련 기반시설의 특성 조사, 유아교육·보육기관 전통놀이 활용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지역사회/ 유아교육·보육기관/가정 대상 사례조사, 포커스 그룹 인터뷰 및 의견조사, 놀이 워크숍, 전문가 자문회의

연구결과

- 문헌 및 전승자료를 통해 수집한 지역별 전통놀이
 - 서울·경기권 전통놀이 145종, 강원·충청권 전통놀이 262종, 경상권 전통놀이 165종, 전라권 전통놀이 159종, 제주도 전통놀이 43종 수집: 아동이 즐겼던 놀이라는 특성상 전국적으로 유사한 놀이가 많음.
- 지역사회에서의 전통놀이
 - 지역사회 문화기반시설이 거점이 되어 지역주민들에게 놀잇감 없이 맨몸으로 할 수 있는 놀이, 땅이나 바닥에 그림을 그려 할 수 있는 놀이 등 다양한 놀이를 소개할 필요가 있음.
 - 지역사회 문화기반시설은 운영 방식에 따라 유아의 전통놀이 경험 축적을 위한 장소가 될 수 있음.
- 유아교육·보육기관에서의 전통놀이
 - 기관에서 수시로 하는 전통놀이와 집중 실시 기간에 하는 전통놀이를 응답한 비율 순으로 살펴보면 상위 7종의 놀이가 동일함. 많이 하는 전통놀이는 '투호, 윷놀이, 제기차기, 비석치기, 사방치기, 딱지치기, 팽이치기'로 놀잇감 놀이가 대부분임.
 - 교사의 전통놀이 경험은 유아의 전통놀이 지원에 큰 영향을 미침.



- 전통놀이는 유아의 놀이 과정에서 다양한 놀이로 확장되며, 끊임없이 변형, 발전, 연결될 수 있음.
- 가정에서의 전통놀이
 - 전통놀이를 하는 것은 유아뿐만 아니라 부모에게도 의미 있는 경험임.
 - 전통놀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즐길 수 있다는 것을 유아와 부모가 알게 하여 전통놀이에 대한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음.

정책 제언

- 전통놀이 방식의 다양화
 - 놀이 자원을 늘리면서 전통놀이를 전통적인 방법으로만 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놀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확장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는 작업이 필요함. 본 연구에서는 놀이방식을 다양화하기 좋은 전통 놀이 37종을 제시함.
- 지역사회에서의 전통놀이 활용방안
 - 지역사회 내 정보 및 인적 교류의 중심이 되는 거점기관 구축(지속적인 전통놀이 콘텐츠 개발 및 지원)
 - 인력 양성 지원
 - 지역사회 공간(어린이공원,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 마을 커뮤니티 등)에 전통놀이 활동 접목
- 유아교육·보육기관에서의 전통놀이 활용방안
 - 교사의 전통놀이 체험 기회 강화(전통놀이 관련 교사연수 및 다양한 교육기회 강화)
 - 유아가 즐길 수 있는 전통놀이 소개 및 활동자료 보급(꼬리에 꼬리를 무는 전통놀이)
- 가정에서의 전통놀이 활용방안
 - 유아 대상 미디어 프로그램에서 전통놀이 소개/활용 및 전통놀이 인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 등 홍보 활동
 - 기관(유아교육·보육기관, 육아지원기관)-가정 연계 활동 지원
 - 부모 대상 전통놀이 교육(부모교육 활동에 전통놀이 포함)

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한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영유아 지원방안 연구

이윤진, 박창현, 김문정

배경 및 목적

- 정부차원에서 전국 규모의 북한이탈주민 가정 단위의 실태조사를 실시한 적이 없어서 이들 가정 자녀의 성장발달, 양육환경, 양육실태 등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가 부재함.
- 북한이탈주민 가정 영유아의 양육의 취약성 정도를 실증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반 가정 및 일반 취약계층 가정 영유아와의 비교분석이 필요함.
-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가장 최근에 실시한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와 한부모가족실태조사의 결과와 비교 분석하고 북한이탈주민 가정 영유아의 건강하고 균형있는 성장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함.

연구방법

- 설문조사: 만0~5세 영유아 자녀가 있는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주양육자 150명(최종 151명 표집)
- 면담조사: 설문조사 참여자 중 면담조사에 동의한 사례 대상으로 가구특성별로 4개 유형(수급한모가구, 수급양부모가구, 비수급한모가구, 비수급양부모가구)으로 분류해서 총 26명 대상으로 실시
- 국회토론회: 정부부처 담당자, 학계전문가, 현장전문가와 함께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정책방안을 협의

연구결과

- 건강영역
 - 북한이탈주민 가정 영유아 자녀 건강 4.49점, 일반 가정 영유아 자녀 건강 4.53점
 - 북한이탈주민 가정 주양육자 건강 3.50점, 일반 가정 주양육자 건강 4.22점
- 발달 및 교육, 양육 및 돌봄
 - 인지·언어발달은 북한이탈주민 가정 영유아가 더 높음(주양육자의 주관적 평가 결과;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 양육스트레스도 북한이탈주민 주양육자 27.54점, 일반가정 주양육자 27.77점으로 긍정적임(주양육자의 주관적 평가 결과;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높음).
 - 자녀의 교육기대수준이 일반가정에 비해 높음(대학원이상: 탈북가정 약 63%, 일반가정 약 37%)
 - 어린이집·유치원 이용율이 일반가정보다 높음(북한이탈주민 가정 83.4%, 일반가정 66.4%).
 - 일반 한부모가구(약 72%)보다 탈북 한부모가구(약 91%)의 어린이집·유치원 하원 후 주양육자의 돌봄비율이 높음. 이는 주양육자의 경제적 활동과 연결되는 대목으로 탈북 한부모 가구의 경제적 취약성을 방증함.



- 관계, 여가 및 활동
 - 북한이탈주민 가정이 일반가정보다 주변 가족이나 지인으로부터 경제적 도움, 생활도움을 거의 받지 못함. 특히, 탈북 한부모가구와 탈북 수급가구가 가장 열악함.
 - 스마트폰, 컴퓨터 게임 이용은 탈북 가정 영유아가 더 많이 함.
- 물질적 환경
 - 박탈지수: 북한이탈주민 가정 약 11.7개, 일반가정 약 8.6개(숫자가 클수록 박탈이 많음)
 - 탈북 가정 내에서도 수급가구, 한부모가구의 박탈지수가 높았음.
- 월평균 가구소득
 - 코로나19 이전보다 약 9%가 감소해서 평균 약 243만원으로 집계됨.

정책 제언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정책에서 육아정책 확대 및 강화를 통한 건강한 가정으로서 안착
- 생애초기단계부터 교육·보육격차 해소를 통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 북한이탈주민 가정과 일반가정 간의 물질적 환경 격차 완화를 통한 사회통합 도모
- 북한이탈주민 가정특성을 고려한 보다 세밀한 맞춤형 지원
- 일반적인 보건·의료, 상담·치료 중심의 맞춤형 통합서비스에서 의식주, 치과치료, 문화생활, 사회적지지, 교육, 취업지원 등 생활 전반으로 지원범위 확대
- 미래 희망을 꿈꿀 수 있는 미래지향적 지원
- 육아지원정책 전달체계 명료화 필요: 북한이탈주민 전달체계(통일부)와 일반 전달체계(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노동부 등) 이원화 체계 정비

코로나19 대응 영유아 교육·보육 정책 국제비교

조숙인, 김나영, 김재희, 김영민

배경 및 목적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세계 영유아 양육, 교육 환경이 변화하였으며, 이에 따라 영유아의 건강한 삶이 위협받고 있음.
- 미국, 독일, 한국을 중심으로 팬데믹 이후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화된 영유아 교육·보육 정책 내용 분석과 온라인 전문가 조사를 통해 코로나19 대응 영유아 교육·보육 정책성과, 정책 시행의 어려움, 개선 방안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
- 3개국 국제비교 조사를 통해 도출된 시사점을 정리하고, 감염병 재난 극복을 위한 영유아 교육·보육 지원 정책의 향후 대응 방향성을 제안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연구방법

- 문헌연구: 미국, 독일, 한국의 영유아 교육·보육 정책 자료 정리(정부 발행 문서, 보도자료 등)
- 전문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
- 전문가 조사: 미국, 독일,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현장/학계/정책 전문가 총 40명 대상 온라인 조사 시행
- 온라인 국제 심포지엄 개최
- 전문가 자문회의 및 정책실무협의회 개최

연구결과

- 영유아 교육·보육 운영 관련 시사점
 - 긴급돌봄 제공: (미국, 독일) 사회필수인력 중심, (한국) 보편적 제공
 - 코로나19 검사: (독일) 교직원 정기 검사, 기관과 가정에 자가검사키트 제공하여 활용, 영유아 용이한 타액검사 위해 Lolli-test 도입
 - 마스크 착용: (한국) 마스크 착용 의무, (미국, 독일) 실내 활동 중심 착용
 - 코로나19 백신 접종: (공통) 교직원 우선 접종 대상 선정, 접종 속도 상이
 - 코로나19 관련 기관 운영 지침: (공통) 정부차원 지침 활용, 변동 잦아 적용 어려움 발생
- 교사 연수 지원 관련 시사점
 - (공통) 제한적 교사 연수 기회, 원격 수업, 디지털 미디어 교육에 대한 연수 추가 필요성 대두



- 영유아 학습 지원 관련 시사점
 - (공통) 교사/기관 차원의 가정 내 학습, 놀이꾸러미 제공 등으로 제한, 정부 차원의 지원은 디지털 기기 지원 등의 수준으로 이루어짐.
- 기관 대상 비용 지원 관련 시사점
 - (공통) 방역물품 지원, 식료품 구매 보조금, 기관 증축, 공기청정기 구비 비용 지원 등으로 제한됨.
 - (미국) 재정 지원 규모가 가장 큼.

정책 제언

- 영유아 교육·보육 기관 ‘단계적 일상회복’ 기본 방향 제시: 방역, 교육·보육 측면
- 기관 운영 세부 전략 제시
 - 교실 내 밀집도 조정 및 긴급돌봄 이용 기준 수정
 - 코로나19 검사: 자가검사키트 활용, 영유아 대상 안전한 검사법 도입(예: 독일의 Lolli-test)
 - 코로나19 관련 기관 운영 지침: 의무사항/권고사항 구분, 기관 코로나19 확진 관련 사후관리 지침 마련
- 교사 연수 지원 관련 세부 전략 제시
 - 영유아 특성 고려한 원격교육, 대면교육 혼합 활용, 교사 연수 프로그램 질 개선, 쌍방향 온라인 연수 지원
- 영유아 학습 지원 관련 세부 전략 제시
 - 코로나19 영유아 학습 지원 모범 사례 발굴, 블렌디드 러닝 지원 전략 수립
- 기관 비용 지원 관련 세부 전략 제시
 - 지원금 사용용도 결정권 기관에 부여, 다양한 유형의 영유아 교육·보육 기관에 보조금 분배

행복한 육아문화 정착을 위한 KICCE 육아정책 여론조사(V)

박원순, 최윤경A, 김희수

배경 및 목적

- 육아정책의 수립을 위해 체계적인 방법을 통하여 직접적인 수요자인 영유아와 부모의 필요를 파악하고 조부모, 예비 부모를 포함한 다양한 국민의 정책 수요를 직접 파악하고자 함.
- 반복된 정기 조사를 통한 중장기적인 추세 분석으로 행복한 육아문화에 대한 국민 여론의 변화를 모니터링하여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연구방법

- 대국민 여론조사
 - 전국 만 15세 이상 75세 미만 남녀를 대상으로 성별, 연령, 지역규모를 고려하여 3,000명을 비례표집함.
 - 조사방법은 온라인 패널을 대규모로 확보하고 있고, 여론조사 경험이 풍부한 전문조사기관을 활용함.
- 수시 여론조사
 - 코로나19로 인한 가정 내 학습 환경 및 양육의 어려움에 대한 설문을 2020년 설문에 참여했던 부모(n=269)와 신규로 참여한 영유아 부모(n=531)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시기에 따른 코로나19의 영향을 비교하였음.
- 집단심층면담
 - 세대별 의견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집단심층면담을 실시함.

연구결과

- 대국민 정기 여론조사 매년 3,000명 이상이 참여하여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연인원 15,111명이 참여하였음.
- 전통적 부모됨의 가치관, 육아관, 결혼관의 부정적 변화
 - 부모가 되는 일은 행복한 일, 가급적 부모가 영유아를 직접 돌봐야 함, 어머니가 우선적으로 양육 담당해야함 등의 부모됨과 관련한 전통적 인식에 대한 긍정 의견이 갈수록 줄어들.
 - 자녀 양육에 대한 부정적 인식(경제적, 신체적 부담감)이 늘어가고 있음.
 - 자녀의 성장으로 인한 성취감을 양육의 즐거움으로 꼽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짐.
 - 결혼을 해야 한다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며 특히 여성의 부정적 견해가 매우 큼.
 -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긍정 응답이 계속 줄어들.



- 육아정책에 대한 긍정적 변화
 - 성별에 따른 육아정책의 평가 차이가 지속적으로 줄어들음.
 - 영유아에 대한 지원 강화, 세금 추가 부담 의지, 비용지원에 대한 여론이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확대됨.
- 코로나19 관련 변화
 - 영유아의 가정 내 활동시간이 전반적으로 증가.
 - 영유아의 가정 내 활동 중 가장 높은 비중이 텔레비전 시청임.

정책적 시사점

- 결혼 및 출산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심화되고 있으며 일·가정 양립 및 부부간 양육분담, 양육의 사회적 책임 부분에 대해 개선되고 있음에도 여성, 저소득층의 부정적 견해가 더욱 두드러짐.
- 소득별로 양육의 어려움에 대해 고소득자는 심리적 어려움으로, 저소득자는 육체적 어려움으로, 지원 정책에서는 고소득자는 직장의 지원을, 저소득자는 정부의 정책지원을 더 많이 요구함.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IV): 2020~2021년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배경 및 목적

- 2021년은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만 4년이 경과하는 후반기에 접어드는 시기로, 정책의 추진 과정과 성과를 검토, 분석하여 실행력을 제고해야 하는 시점임.
- 본 연구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매해 수행하는 연속과제의 4차년도에 해당하는 정책연구로써, 2020년에 정부가 추진한 육아정책을 진단, 분석하고 미비점 파악 및 향후 개선과제와 우선순위를 도출하고자 함.
- 또한 2020년 이후 시행된 코로나19 대응 육아지원 정책에 및 문재인 정부 4년간 이루어진 육아정책 국정과제에 대한 평가를 수행함으로써 향후 정책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연구방법

- 문헌분석: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다룬 국내외 연구와 정부보고서를 고찰
- 설문조사: 육아정책의 성과 및 개선점을 파악하기 위해 육아정책 관련 분야 전문가 100명, 영유아 및 초등 저학년 부모 2,000명, 유치원 원장 및 교사 198명,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 1,27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 면담조사: 육아정책에 대한 정성평가를 위해 부모 및 기관 종사자에 대한 면담조사를 실시
- 계량분석: 지자체 출산지원금,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정책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국가통계포털(KOSIS) 데이터를 분석

연구결과

-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에서 부모 및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가장 높은 성과를 보인 정책은 '아동수당'으로 나타남.
- 유아교육·보육·초등돌봄 정책에서 부모 설문조사 결과 성과가 가장 큰(육아에 실제 도움이 되는) 정책은 '초등 방과 후 돌봄 지원 확대(초등돌봄교실, 다함께돌봄센터 확충 등)',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의 순으로 나타남.
- 유아교육·보육·초등돌봄 정책에서 부모 설문조사 결과 성과가 가장 미흡한(육아에 실제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은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보육서비스 질 제고',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의 순으로 나타남.
- 유아교육·보육·초등돌봄 정책에서 전문가 조사 결과 가장 큰 성과를 보인 정책은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이용률 제고', '초등돌봄 확대(학교-지자체협력 온종일돌봄체제 구축)'의 순으로 나타남.
- 유아교육·보육·초등돌봄 정책에서 전문가 조사 결과 가장 성과가 미흡한 정책은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 '보육서비스 질 제고'의 순으로 나타남.



- 유아교육·보육·초등돌봄 정책에서 부모 및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향후 가장 집중해야 할 과제는 '보육서비스 질 제고'로 나타남.
- 유아교육·보육·돌봄 정책에서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 설문조사 결과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줄여야 함'로 나타났고,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우선적으로 조정해야 하는 반은 0세반으로 나타남.
-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에서 부모 및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가장 성과가 높은 정책은 '육아휴직제도'로 나타났고, 가장 성과가 미흡한 정책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로 나타남.
- 코로나19 대응 육아지원 정책에서 정책 효과성이 가장 높은 정책은 부모 설문조사에서는 '아동양육한시지원(아동돌봄쿠폰 40만원, 아동특별돌봄지원금 20만원)'으로 나타났고, 전문가 조사에서는 '코로나19 긴급돌봄 제공(어린이집)'으로 나타남.

정책 제언

- 아동수당의 점진적 확대: 중장기적으로 가족정책 예산의 GDP 비중을 OECD 평균 수준으로 확보하고 아동수당의 지급 수준 역시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
-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지원 확대: 육아휴직제도 내실화를 위해서는 육아휴직 의무화 및 대체인력 지원 확대 등을 통하여 중소기업에서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요구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이용 확대를 위해서는 자녀연령 및 가구 여건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순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직장 내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확대가 요구됨.
- 초등돌봄 정책의 개선 방향: 온종일 돌봄체계와 초등돌봄교실의 근거 법령이 미비한 상태이므로 근거법 마련이 선행되어야 함.
-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서는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줄이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하고, 그 중에서도 0세반을 비롯한 영아반의 교사 대 아동비율을 우선적으로 줄여야 함.
-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 유보통합 정책을 포함하여 동일 연령 영유아에 대한 출발선 평등을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를 사회적 논의를 거쳐 로드맵을 제시해야 함.
- 저출산 정책 예산 재편성: 저출산 정책의 재정효율화 및 관리효과성 확보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간접지원 정책이 아닌 직접지원 정책 중심의 저출산 정책 예산 재편성이 필요함.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IV)

최효미, 이정원, 김자연, 이재희, 김태우

배경 및 목적

- 5개년 연속 연구의 4차년도 연구로, 육아가구의 양육비용 부담 완화 및 육아서비스 지원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임.
- 심층분석으로 코로나19 확산 초기의 양육비용 변화 및 공적지원금 효과를 분석하고, 시의성 주제로 비대면 육아서비스 및 가정내 돌봄, 부모지원서비스 등에 대한 추가 설문을 개발하여 분석함.

연구방법

- ‘KICCE 소비실태조사’는 3차년도 자료 구축이 완료된 표본중 2021년 초등2학년 이상이 되는 표본은 제외하고 초등1학년이 되는 2014년생 이하 표본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2020년 하반기 및 2021년 상반기에 출생한 아동에 대한 신규표본을 구축함.
- 문헌연구, 기 구축자료를 활용한 심층 분석 실시, 부모 대상 심층 면담,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실시함.

연구결과

- ‘KICCE 소비실태조사’ 조사결과
 - 가구 기준 4차년도 전체 표본 수는 1,933가구(아동 2,832명)이며, 추적조사 성공률은 87.1%였고, 대체조사한 가구가 216가구, 4차년도에 신규 조사한 가구가 254가구임.
- 2021년(4차년도) 육아 가구 양육비용 실태
 - 2021년 육아 가구의 총 양육비용은 월평균 119만 6천원으로 전년대비 3만 1천원가량 증가하였으나 총 양육비용의 편차는 더욱 커진 것으로 분석됨.
 - 영유아 가구의 양육비용은 월평균 86만 1천원으로 전년대비 3만 9천원가량 증가하였음.
 - 아동당 양육비용은 영유아 1인당 61만 2천원, 초등 1학년 1인당 79만 9천원으로 초등자녀양육비용이 더 높음.
- 영유아 육아서비스 이용 행태
 - 2021년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률은 80.5%로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 이전 수준을 회복함.
 - 반일제이상 기관의 온라인수업 이용 경험은 어린이집 2.6%, 유치원 5.8%, 반일제이상 학원 6.9%로 나타남.
 - 2021년 영유아는 시간제사교육 이용률은 1~3차년도 대비 증가함. 단시간 학원 이용률이 21.3%로 가장 높고, 비대면형 시간제 사교육인(비방문 학습지, 온라인 통신교육, 비방문형 교구 활동 교육, 교육용 온라인 콘텐츠)은 6.6%가 이용해 3차년도 대비 소폭 증가함.



- 초등 육아서비스 이용 행태
 - 방과후 학교 이용률이 38.5%로 가장 높고 3차년도 4.5%에 비해 현저히 증가하였음. 시간제사교육 중에서는 단시간학원 이용률이 84.6%로 가장 높고 2~3차년도 대비 증가하였고, 방문형학습지는 26.3%로 비중은 높으나 2~3차년도 대비 감소하였음.
- 가정 내 돌봄 및 부모지원서비스 이용 행태
 - 2021년 개별돌봄서비스 이용률은 12.3%로 3차년도에 감소하였다가 회복되는 경향을 보임.
 - 가정 내 부모 직접돌봄 시 장난감 대여를 이용해 본 비중은 5.6%, 도서대여 이용 비중은 15.5%, 육아물품지원을 받아본 적이 있는 경우는 9.4%에 해당함.
 - 부모지원서비스 중 부모상담 이용률이 10.8%로 가장 높았음.
- 코로나19 확산 초기 양육비용 변화와 공적지원금 효과
 - 지니계수를 통한 가구소득 불평등도 분석에서 2차년도 대비 코로나19확산 초기인 3차년도(2020년)에 영유아가구 내 불평등도는 개선된 것으로 분석됨.
 - 총 양육비용도 코로나19확산 초기에 모든 소득 분위에서 전반적으로 감소함.
 - 영유아가구 중 코로나19 관련 공적지원금을 수혜받은 비율은 7.0%이며, 이러한 공적지원금은 영유아가구의 총 양육비용 경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됨.

정책 제언

- 생애초기 동등한 출발선 보장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강화 방안으로 '아동수당 플러스 도입 검토', '의료 지원 강화', '스포츠 바우처 및 문화바우처 활용도 제고', '저소득 한부모 가족 여성의 자립 지원 및 보육 지원 강화'를 제안함
- 위드 코로나 대응 및 미래 사회를 위한 준비 방안으로 '공공 돌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 체계 마련', '가정 내 돌봄 지원 강화', '에듀테크를 접목한 공공 서비스 개발 및 보급 확산', '온라인 부모 지원서비스 다양화 및 활용도 제고'를 제안함.
- 육아지원 정책의 실효성 제고 방안으로 '육아정책 지원 통합 플랫폼 구축 및 전문인력 배치', '일-생활 균형 지원제도의 정착을 위한 지원 강화', '단시간 돌봄 공급 확대 및 활용도 제고 노력'을 제안함.

KICCE 육아물가지수 연구(IV)

박진아, 조미라, 이혜민

배경 및 목적

- 육아정책연구소에서는 영유아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의 양육비용 부담이 저출산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판단 아래 영유아 가구 지출 비용에 대한 연구들을 다수 수행함.
 - 특히 교육·보육 비용의 보편적 지원체계가 도입된 이후 육아상품과 서비스 가격 모니터링을 위해 'KICCE 육아물가지수'를 개발하고 산출하는 연구를 지속하였고, 2018년부터는 『영유아 가구의 소비 실태 및 육아물가 연구』의 두 번째 연구주제로 육아상품과 서비스 등에 대한 시장가격 추이를 모니터링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주기적으로 육아물가지수를 산출함.
- 2021년 수행되는 본 연구에서는 육아정책연구소에 축적한 상품 및 서비스 가격 데이터와 KICCE 육아물가지수를 통해 2013년부터 2020년까지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고, 정부 정책 변화에 따른 영유아 가구에서 소비하는 상품과 서비스 가격 변화 분석을 목적으로 수행함.

연구방법

- 문헌연구
- 통계자료분석
- 영유아 부모 설문조사

연구결과

- 2018년 KICCE 소비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산출한 KICCE 육아물가지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를 구성하는 11개 육아품목들의 육아물가지수(Ⅰ)를 산출한 결과 2021년 육아물가지수(Ⅰ)는 99.1로 동기간 소비자물가지수 107.5에 비해 낮은 수준임.
- 영유아 가구의 주요 육아품목에 대해 체감지수를 산출한 결과,
 - 2018년도에 조사설계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시계열 분석 시 신중을 기해야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2013년도 조사 이후 등락을 보이던 지수들이 2015년에서 2019년까지는 증가하다가 2020년과 2021년에는 하락 경향을 보이고 있음.



- 품목별로 구분해 살펴보면 소비재, 내구재, 서비스재 모두 전반적으로 비슷한 등락의 패턴을 보이는 가운데 내구재의 가격체감도와 가격부담도가 소비재와 서비스재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나, 영유아 가구가 육아품목 중에서도 특히 유모차, 카시트, 자전거와 같은 내구재에 가격부담을 크게 느끼는 것도 확인됨.
- 2013년도부터 영유아 가구의 가격체감도 가격부담지수 외에도 영유아 가구가 느끼는 경제 전반적 인식과 전망에 대하여도 산출 결과를 보면, 생활형편전망과 가계수입전망의 2개 항목만 100미만이고 나머지 항목에서 모두 100을 초과하여 비관적인 인식과 전망이 큰 것으로 나타남.

정책 제언

- 영유아 가구에서 체감할 수 있는 육아물가지수를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의 하위지수로 산출하고 소비자동향지수와 심리지수의 영유아 가구 지수를 추가하여 산출할 것을 제안함.
- 육아물가지수는 영유아 가구에서 체감하는 시장가격 변동으로 이를 정부 정책의 지원단가와 연계할 것을 제안함.
- 유치원-어린이집 가격 지역 격차 해소
 - 단기적으로는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료 상한액과 지자체 특수시책 간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정부 차원에서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현재 유아교육특별회계로 지원되고 있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원금을 단계적으로 상승시켜야 할 것임.
 - 유치원의 원비는 원비인상을 상한제 도입으로 인해 제도 도입 시점의 원비에 따라 이후 비율로 원비가 책정되어 기존 원비가 낮았던 유치원과 높았던 유치원과의 격차가 일부 발생함에 따라 중앙정부에서는 적정 표준유아교육비를 산출하여 시·도교육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비용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할 것임.

초저출산 사회 극복을 위한 육아친화마을 조성 방안 연구(III): KICCE 육아친화마을 인증사업 시범 적용

김나영, 권미경, 오동석, 정유나

배경 및 목적

- 육아지원정책들이 수요자의 생활환경인 지역사회 안에서 어떻게 실행될 수 있는가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양육환경을 재설계하는 작업이 필요
- KICCE 육아친화마을 인증에 필요한 절차를 수립하고, 육아친화마을 인증사업 수행에 필요한 매뉴얼 마련
- KICCE 육아친화마을 인증사업 근거 법개정 검토: 인증사업의 계속성을 위하여 향후 인증사업 운영에 필요한 법 규정 검토
-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 활용사례 보고
- 연구방법
- 본 연구의 주제인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먼저 우리 사회의 ‘저출생’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자 전국 만 25~45세 성인 남녀 1,000명의 온라인 패널을 대상으로 온라인 자기기입식 설문조사 실시
- 2차 데이터를 기반으로 연구진이 구축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지역)육아친화 인식(적절성, 만족도 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여 사회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여 인증 심사 시 해당 요소들의 평가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연구결과

- 저출생 인식 조사
 - 저출생 현상에 대한 심각성 평가 조사 결과, ‘심각함’ 89.0%, ‘심각 안함’ 11.0%로 나타남.
- 육아친화 인식 조사·분석
 - 대도시는 읍면동과 비교하여 ‘양육환경 적절성’이 평균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모가 취업을 하였다면, 자녀 수가 적을수록 ‘지역시설 이용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육아친화마을 인증사업 기본계획
 - 인증사업 추진 방향 및 목표, 사업추진계획, KICCE 육아친화마을 신규인증 방법 및 절차, 인증 모니터링, 육아친화마을 컨설팅 운영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관련 법 개정방안 및 지방자치단체의 육아친화마을 조성 조례 제정 방안 마련
- 인증사업 추진에 필요한 컨설팅 사업에 대한 절차 및 내용 마련



정책 제언

- 인증 기준 세분화: 본 연구에서 데이터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역의 평균적인 '양육환경 적절성'의 경우 대도시가 읍면동과 비교하여 낮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인증 기준 수립 시 이를 반영하여 대도시의 경우 육아친화 컨설팅 수행을 필수항목으로 지정하여 양육환경 적절성 개선을 보다 강화
- 기본조례 마련: KICCE 가칭 「육아친화마을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 제정 안을 제안함으로써 지자체 차원에서 이를 참고로 하여 기본적인 육아친화마을조성 개념을 공유하면서 지자체 특징을 반영한 조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제안
- 유사 인증사업과의 관계 정립: 다양한 관련 '친화'사업이 시행되고 있고, 이미 여성가족부에서 두 개의 친화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므로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 인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들 유사 친화(인증)사업들과의 관계에 대한 정립이 필요
- 컨설팅사업의 활성화: 육아친화마을 조성을 실질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지방정부의 경우 전담인력 및 예산 확보의 어려움, 연속성 있는 인력 운영이 쉽지 않기 때문에 육아친화 환경 조성에 대한 컨설팅 지원 필요

「2019 개정 누리과정」 모니터링 및 지원방안 연구(II)

김은영, 구자연, 김혜진, 전홍주, 최명희

배경 및 목적

- 개정 누리과정이 제대로 안착되기 위해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현장에서 교육과정이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함. 이러한 맥락에서 육아정책연구소는 개정 누리과정 안착을 위하여 ‘「2019 개정 누리과정」 모니터링 및 지원방안 연구’를 3년차(2020~2022년)로 기획함.
- 본 연구는 ‘「2019 개정 누리과정」 모니터링 및 지원방안 연구’의 2년차 연구로 모니터링의 초점을 교원의 전문성과 교육과정 실행에 두고 2020년에 제안한 개정 누리과정의 안착을 위한 정책 방향을 유지하면서 정부와 전달체계 차원의 정책 방안을 제시하되 기관과 교사의 배경특성에 따른 세부 지원방안을 함께 제안하고자 함.

연구방법

- 문헌연구
- 설문조사
 - 전달체계 담당관 대상 설문조사: 17개 시·도교육청 장학관(사)과 어린이집 보육과정 운영을 지원하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시도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 18명
 - 현장 교원 대상 설문조사: 유치원과 어린이집 각 500개 기관씩 총 1,000개 기관의 원장(감)과 교사, 총 2,000명
 - 학부모 대상 설문조사: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5세 학부모 1,000명
- 사례조사: 유치원 6개원과 어린이집 6개소[원장(감) 총 12명, 교사 총 28명]를 대상으로 2회 실시
- 정책워크숍: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사, 시·도교육청 장학관, 시·도육아종합지원센터장 대상
- 정책토론회
- 전문가 자문회의 및 정책연구실무협의회

연구결과

- 개정 누리과정 안착을 위한 정부의 지원
 - 개정 누리과정 안착을 위한 사업은 시·도교육청이나 육아종합지원센터별로 지원하는 사업 유형이나 대상의 규모 및 예산은 상당한 편차가 있었지만, 개정 누리과정 안착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현장을 지원하고자 함.
- 개정 누리과정 실행 및 인식



- 조사결과는 2020년도 연구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임.
- 조사 대상 부모는 자녀에 대해 성격과 태도에 대한 기대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사회성으로 나타남.
- 누리과정 운영 전문성에 대한 교사의 자기 평가에서는 4점 척도의 모든 항목에서 3점 이상으로 양호하였음.
- 코로나19가 개정 누리과정을 실행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은 전체의 90.2%에 달하였으며, 영향을 미친 정도는 4점 척도에 3.25점으로 전년도 3.50점에 비해서는 다소 감소함.
- 부모를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원격교육이나 휴원 경험 유무를 조사한 결과, 35.9%가 원격교육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72.0%가 휴원 경험이 있다고 응답함.
- 개정 누리과정 실행을 통한 유아의 변화에 대해 원장과 교사 모두 주도성 증대를 꼽은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59.1%의 부모가 자녀의 긍정적 변화를 인식하였고, 자녀가 더 행복해하고 즐거워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음.
- 개정 누리과정 안착을 위한 정책적 요구에 대해서 원장과 교사 모두 교사 대 유아 비율 조정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음.
- 개정 누리과정 운영 사례
 -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기관 특성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조직문화가 점차 지원, 소통, 협력으로 변화되고 있음.
 -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들은 개정 누리과정이 도입되면서 교사의 전문성이 더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음.
 -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유아의 참여와 주도성 강화라는 개정 누리과정의 취지에 잘 부합되는 변화를 보이고 있음.

정책 제언

- 정부 차원에서 초·중·등 교육과정과 동등한 지원을 위한 부처 간/부처 내 협력, 질 높은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인력 배치 및 교사 대 유아 비율 조정, 교사의 자율연수 기반 마련을 위한 연수은행제 마련, 교육과정 운영지원을 위한 기관 평가 개선, 유아교육과 초등교육의 연계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 연구 및 지원, 장애유아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 연구 및 지원, 국민 대상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와 캠페인 추진, 누리과정 운영의 질적 격차 완화를 위한 차별화된 지원을 제안함.
- 전달체계 차원에서 지역수준의 실정을 반영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지자체 간 협력 강화를 통한 자원 공유 및 연계, 심화연수 및 전문가 맞춤형 컨설팅 활성화, 학습공동체 등 교사의 자율연수 지원, 시범기관 운영 등을 통한 우수사례 및 정보 공유, 부모교육 및 부모참여 활성화 지원을 제안함.

육아존중문화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 방안 연구(III): 가정과 지역사회에서의 육아존중문화 조성

권미경, 김지현, 김영민, 박혜준, 서혜민, 강향미, 송지연

배경 및 목적

- 본 과제는 한국의 육아와 관련한 문화가 긍정적 측면보다는 부정적 측면이 강조되고 있고, 이러한 인식이 저출산 기조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이는 정책적인 노력을 통해 긍정적으로 변화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비롯됨.
- 3차년도 연구에서는 부모의 육아권과 아동권을 존중하는 긍정적 육아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사회 안에서의 육아문화를 진단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사회·제도적 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연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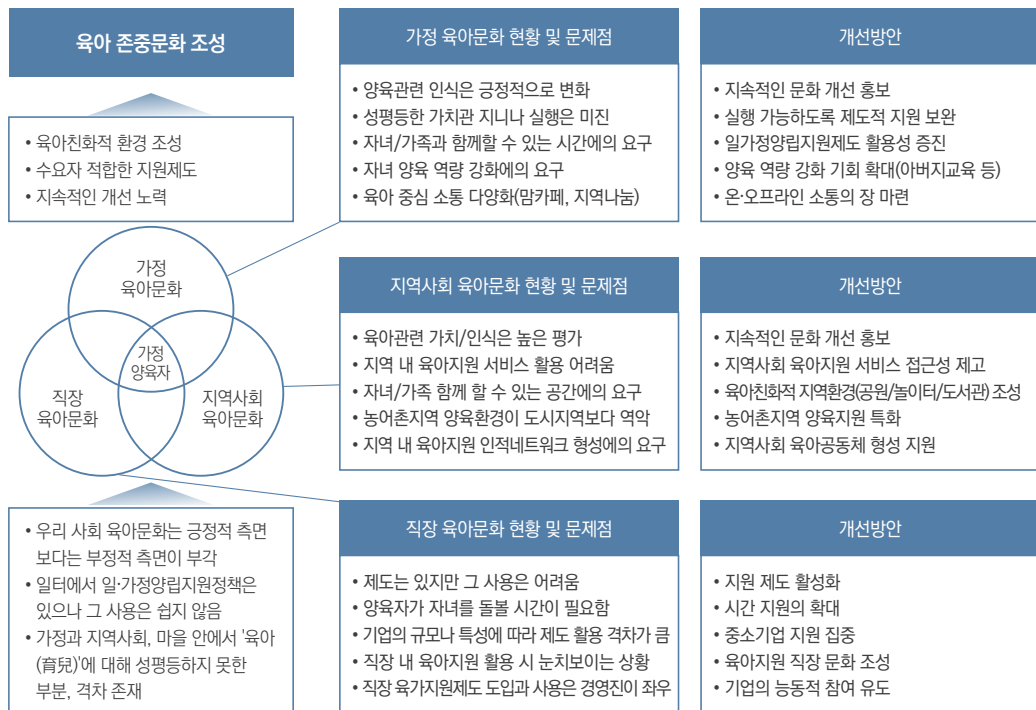
- 문헌연구, 국내외 지역사회 사례조사, 부모대상 심층면담, 영유아 부모 1,228명 대상 설문조사, 육아문화 크리에이티브 워크숍 1회 개최, 전문가 자문회의 및 정책실무협의회, 'SBS 희망TV-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 프로젝트 구성

연구결과

- 가정에서의 육아문화 양상과 문제점은 다음으로 요약됨.
 - '자녀, 양육과 관련된 인식은 점점 긍정적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가정에서는 대체로 성평등한 가치관을 지니나 실제 양육 부담 등의 실행은 여전히 미진하다.', '자녀/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지원에의 요구가 높다.', '부모들은 자녀 양육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기회를 희망한다.', '맘 카페, 육아용품 지역 나눔 등의 육아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교류와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 지역사회에서의 육아문화 양상과 문제점은 다음으로 요약됨.
 - '지역사회에서 양육자가 체감하는 육아 관련 가치나 인식은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지역 내 육아지원 서비스의 활용에는 여러 가지 제약을 경험한다.', '가까운 지역사회 안에서 자녀/가족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에의 요구가 높다.', '농어촌 지역의 양육환경이 도시 지역보다 열악하여 개선이 필요하다.', '양육자들은 지역 내 육아지원 인적 네트워크 형성에의 요구가 높다.'
- 육아존중문화,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의 방향성을 3가지로 제시함.
 - 자녀와 그 양육자의 환경으로 가정, 직장, 지역사회를 포함하는 우리 사회가 '아이 기르는 일'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 가족들이 현대 받는 육아존중문화를 이루기 위해서 양육자 환경의 육아친화성(育兒親和)을 증진하고, 육아지원 제도의 수요자 적합성을 향상시켜 가며, 육아문화 개선 노력과 홍보의 지속성 확보가 필요함.



정책 제언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 2021(한국아동패널 II)

김지현, 김동훈, 조미라, 배윤진, 김혜진, 박은영

배경 및 목적

- 한국아동성장발달 종단연구(II)는 대한민국 내에서 출생부터 시작하여 추적하여 조사하는 유일한 종단패널 연구로,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주관하는 장기종단연구로 2008년생 2,150명을 대상으로 처음 조사가 시작되었음.
- 영유아, 아동, 청소년 시기를 거친 성장발달 과정, 어머니, 아버지를 포함한 부모의 특성, 또한 보육·교육기관의 교사들이 파악하는 아동의 특성에 대한 자료를 종단적으로 추적하여 수집하고 있음.
- 제14차 조사는 패널아동들이 청소년기로 접어드는 첫해로서, 중·고등학생 시기에 걸친 청소년기에 진행될 조사의 전반적인 기틀을 잡아야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

연구방법

- 문헌분석을 통해 14차년도 설문개발을 위하여 국내·외 청소년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종단연구의 설계와 조사내용을 분석하였음.
- 청소년 시기 조사방향 및 설문확정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하였음.
- 14차년도 조사에서는 중학교 1학년 아동패널과 패널가구 및 중학교 1학년 담임교사 대상으로 일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14차 조사는 청소년시기 조사의 틀을 잡고, 수행 및 심층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일반조사만 실시하였음.

연구결과

- 2020년 (13차년도) 조사결과를 분석하여 제시함.
 - 13차년도 조사에 참여한 패널 수는 보호자 기준 1,397가구, 아동 1,359명, 어머니 1,380명, 아버지 1,352명임.
 - 가구특성은 평균 가구원수 4.7명, 자녀수 2.2명, 평균 소득 571.4만원, 평균 가구지출 462.4만원임.
 - 초등학교 6학년 패널 아동의 평균 키는 남아 155.93cm(SD = 7.36), 여아 평균 키는 154.89cm(SD = 5.88)임.
 - 휴대전화 보유 비율은 94.34%로 전년도 88.8% 대비 증가, 미디어 이용시간은 하루 평균 2.80시간(SD = 1.55)로, 전년도 하루 평균 1.80시간(SD = 1.03)에서 증가함.
 - 전반적인 행복지수는 4점 척도에서 평균 2.96(SD=0.48)으로 전년도 평균 3.25보다 약간 낮아짐.
 - 전체의 41.78%는 장래에 결혼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하였고(남 44.41%, 여 39.07%), 전체의 36.70%가 자녀를 낳을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음(남아 41.51%, 여아 31.74%).



- 방과후 수업을 제외한 6학년의 사교육 이용 비율은 89.8%임. 가계 소득에 따라 그 비율이 다르게 나타나 가계 소득이 높은 가구의 자녀가 낮은 가구 소득에 비해 사교육을 이용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경향을 보임.
- 2021년 (14차년도) 조사 실시
 - 2021년 14차년도 조사에 최종적으로 참여한 가구는 1,348가구(아동 1,346명)로 조사가 완료되었음(작년 대비 유지율 96.5%).
 - 초등 6학년 패널아동들의 평균 신장은 155.4cm, 평균 체중은 50.0kg로 나타남.
 - 미디어 이용시간이 작년대비 증가하였으며, 스포츠 및 레저 활동시간이 줄어들었음.
 - 패널아동 부모의 경우 코로나로 인해 아버지의 유연근무제 활용이 높아짐.
- 사용자 편의를 위한 문항정리작업
 - 1~12차에 걸친 조사 변수를 조사차수별로 정리하여 설문지와 변수를 매칭시킨 자료를 2022년 초에 아동패널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예정임.
 - 초등시기 사용자 지침서를 개발하여 2022년 초에 아동패널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예정임.

결론 및 제언

- 2020년은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해였으며 팬데믹 기간 동안의 아동들은 전년도보다 코로나 19 기간 동안 여가 활동이 훨씬 적고 미디어 참여가 훨씬 더 많은 등 생활 방식에서 변화를 보여, 이러한 상황에서 어린이들의 건강한 생활습관 관리를 위한 지침 마련이 필요함.
- 코로나 상황과 맞물려, 학년이 올라갈수록 미디어 사용 증가가 늘어나고, 미디어 중독집단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임. 따라서 부모나 교사의 중재 등 아동들의 미디어 이용 상황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찾아 알릴 필요가 있음.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연구 (Korean ECEC Panel Study)

이정림, 박은정, 김자연, 송신영, 이혜민, 이재희

배경 및 목적

- 새롭게 구축되는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은 한국아동패널이 보유하고 있는 주요한 정체성 및 장점은 포용하고, 한국아동패널이 지닌 한계점은 보완하는 방향으로 연구 설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태아기부터 신생아, 영아, 유아, 아동기에 이르기까지 가정에서의 양육, 보육과 교육 경험 및 이와 관련된 인적·물리적 환경요인, 부모의 내·외재적 요인, 지역사회 및 정책 특성 등 생애 초기 성장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에 관한 횡단·종단적 자료를 수집하고 제공함.
- 육아지원정책과 일-가정양립정책 등 관련 정책의 변동으로 인해 육아 환경의 차이를 경험하고 있는 새로운 코호트 아동의 성장·발달, 학교적응, 부모의 양육 인식 등에서의 차이점을 장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향후 아동 발달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방향을 제안함.
- 한국아동패널과의 비교를 통해 한국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에 미치는 요인들의 변화 및 변화 정도 등을 파악하고, 한국아동패널에서 제외되었던 대상을 추가 및 보완함으로써 패널이 산출하는 자료의 가치와 활용성을 높이고자 함.

연구방법

- 관련 심리·발달·건강 변인에 대한 선행연구 및 국내·외 종단연구 검토
- 자문회의 개최
- 권역별 산부인과 자문단 및 연구협력진 구성 및 회의 개최
 - 본 연구의 표본 구축을 위한 출생아 모집 협조 및 출생아 관련 2020년도 기초조사 설문 내용 구성 등에 참여하였던 전국 권역별 산부인과 자문단을 구성하여 관련 회의 등을 진행함.
 - 1차년도(2022년)~9차년도(2030년)에 걸친 중장기적인 조사영역 및 조사 변인 개발을 위하여 연구협력진을 구성하여 관련 회의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진행
 - 유아교육 및 보육 특성을 보다 중점적으로 구성하기 위해 해당 영역만 별도로 '유아교육 분야 협력진'을 구성하여 운영함.
-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참여자 모집 및 패널 대상 기초조사 시행

연구결과

-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의 표본 설계 및 중장기적인 패널 사업 운영 방향을 기획하였음.



- 2021년도는 2022년도 출생아 코호트 구성을 위한 준비 단계로서 임부 패널을 모집하여 조사 대상을 확보하며 임부 대상 기초조사 I, II를 시행하였음.
 - 임부 컨택 시 TAPI(Tablet-PC Aided Personal Interviewing) 조사를 통한 기초조사 I 자료 수집
 - 임신 후반기(32~37주차)에 온라인 조사를 통한 기초조사 II 자료 수집
-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의 출생아 코호트의 표본 설계 및 임부 모집 방안을 기획하고 임부를 모집함.
 - 2022년도 출생아를 가진 임부와 태아 2,016명을 전국 산부인과 병원을 중심으로 모집함
-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의 조사내용 영역 및 변인을 구성하고, 아동의 연령별 발달 단계에 적합한 연도별 주요 사항을 고려하여 향후 10년에 걸친 중장기적인 조사내용을 개발함.
- 패널 홍보와 안내를 위한 홍보 리플렛 제작 및 신규 홈페이지를 개발함.
- 2021년도에 구축한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의 중장기적인 기획 방향 및 내용을 토대로 2022년도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의 추진 방향과 방안 등을 제시함.
 - 사전·사후 조직진단 결과, (1~4차년도와 마찬가지로) 원장·원감의 CARE 조직진단 향상이 유의하게 나타난 반면, 교사의 경우 컨설팅 적용에 따른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음.

2022년도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향후 추진 방안

- 태아·임부 표본 구축 및 유지 관리
- 1차년도(2022년) 조사 준비 및 실시
 - 태아가 출생한 후 1개월 때 어머니 대상의 우울 문항 관련 1차 온라인 설문조사 준비 및 조사 수행
 - 태아가 출생한 후 4개월 즈음 본격적인 가구방문을 통한 광범위한 조사 진행 1~2주 전에 어머니 및 아버지 대상 2차 온라인 설문조사 준비 및 수행,
 - 태아가 출생한 후 4개월 때 출생아 가구의 방문을 통한 1차년도 가구방문 TAPI 조사 준비 및 수행
 - 영아 대상 수행 검사 준비 및 시행
- 1차년도 조사수행을 위한 조사원 교육
- 기초조사 분석 및 1차년도 데이터 구축 및 관리
- 가중치 산출

영아수당 도입방안 연구

유해미, 박은정, 홍희정, 신윤정, 송신영

배경 및 목적

- 2022년 아동가구에 대한 소득보장 및 생활지원 강화를 위해 영아수당이 새롭게 도입됨에 따라 그 필요성 및 기대 효과를 명료화하고, 세부 적용방안을 모색함.

연구방법

- 영아수당의 필요도를 파악하기 위해 0~23개월 자녀를 둔 총 506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 영아자녀(0~1세아)를 둔 자녀의 양육 시 애로사항 및 지원요구를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총 18인을 대상으로 총 7차에 걸쳐 심층면담을 실시함.
- 영아 대상 현금지원의 효과성 등을 파악하기 위해 독일, 프랑스, 스웨덴, 핀란드 사례를 비교 분석함.

연구결과

- 0~1세아 양육 실태와 어려움
 - 0~1세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가구에서 부모를 제외하고 정기적으로 돌봐주는 사람이나 기관이 추가적으로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4.5%이고, 어린이집과 병행이용 중인 서비스의 이용비용은 평균 724,400원으로 조사됨.
 - 0~1세아 양육 시 어려움으로는 '자녀 양육비용에 대한 염려'라고 응답한 비율이 1순위와 1, 2순위를 합하여 각각 36.4%와 47.8%로 가장 높게 나타남.
- 0~1세아 양육방식의 선호도와 육아지원 욕구
 - 0세아의 적합한 비용지원 방식으로는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현금지원'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순위와 1, 2순위를 합하여 각각 49.6%와 61.5%로 가장 높은 선호를 나타냄.
 - 부모가 일할 경우 0세아의 적합한 양육방식으로는 '부모의 직접돌봄'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순위와 1, 2순위를 합하여 각각 46.0%와 54.3%로 가장 높게 나타남.
 - 0세아(0~11개월)의 양육을 위한 육아지원정책 및 제도의 도움 정도를 5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육아휴직제도가 평균 3.81점으로 가장 높은 수위를 보이며, 그 다음으로는 배우자 출산휴가 3.80점, 가정양육수당 3.75점, 0~2세 보육료 지원(연장보육) 3.72점 순으로 조사됨.



- 영아수당의 도움 정도 인식과 지원방식에 관한 요구
 - 영아수당을 도입할 경우 영아자녀를 '희망하는 방식대로 양육할 수 있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78.9%임.
 - 0~1세아(0~23개월) 대상 영아수당의 도입이 자녀양육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5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자유로운 양육방식에 대한 선택'이 평균 3.80점으로 가장 높게 평가됨.
 - 0~1세아를 희망하는 방식대로 양육하기 위해 요구되는 적정 영아수당액은 평균 606,300원으로 조사되었으며, 41~50만원 27.3%, 51만원 이상이 30.2%로 조사됨.

정책 제언

- 영아수당의 기대효과로는 자녀의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추가비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가정 내 보육 등 양육 방식에 대한 선택권을 강화할 여지가 일부 있음.
- 현금지원의 확대가 다양한 육아지원 수요를 얼마나 충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특히 가구특성별 진단이 필요함.
- 지원대상 연령은 정부가 현금지원을 집중해야 하는 시기에 대해 0~1세와 1~2세아가 비슷한 수요를 보이고, 외국 사례에서도 영아기 집중투자 기간은 만 2세까지 포괄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2세아 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검토할만함.
- 지원수준은 희망하는 양육방식대로 자녀를 양육하는 데 소요되는 영아수당액으로 평균 약 60만원으로 응답하였으므로 아동수당 10만원을 반영하면 50만원 선을 고려할만함.
- 지원방식은 현금 방식이 선호되므로(응답률 59.9%) 해당 수요를 반영하되, 그 목적 부합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요구됨.
- 2세아부터 적용되는 가정양육수당의 변화, 보육서비스 접근성 제고, 육아휴직제도 이용률 변화 등을 포괄하여 육아지원 전반의 정합성 제고를 위한 중장기적 검토가 요구됨.
- 영아수당은 보편적으로 지원하되, 2~5세 가정양육수당과 아동수당제도의 발전 과정 등을 감안하여 향후 아동에 대한 현금지원의 종합적인 설계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아동학대 재발방지를 위한 사후 관리 시스템 강화 방안 연구

김나영, 유해미, 박은정, 김자연, 송신영

배경 및 목적

- 학대아동의 보호조치 종료 이후 원가정 복귀 등에 따른 사후 관리 강화의 구체적인 노력이 미흡함.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사회적 노력에서 더 나아가 '사후'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아동학대의 재발방지에 기여해야 할 것임.
- 정부, 지역사회 등 사회구성원의 협력 체계 구축함으로써 보다 실질적이고 전문적으로 아동학대의 사후를 관리할 수 있는 종합적인 체계를 확립해야 함.

연구방법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등 관련 기관의 보고서, 통계자료 등을 바탕으로 실태 자료 수집
- 아동학대 신고건수, 아동학대 조치결과, 아동학대유형, 관련 전문기관 수 및 분포 등을 기준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
-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의견 조사를 실시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에 대한 의견조사를 통하여 현 시스템의 문제점 파악
- 국외사례를 검토(미국, 영국, 일본 등)하여 각국의 문헌 및 정책 자료 수집을 통하여 아동학대 사후 관리 시스템을 파악하여 시사점 도출
- 정책토론회 개최를 통한 토론 및 의견수렴을 거쳐 정부차원(범부처차원)의 종합적인 사후 관리 시스템 마련하고 이를 위하여 도입할 제도 및 정책 제시

연구결과

- 지역별(권역별)로 경력 2년 이상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체계 개선점과 사후관리에 대한 의견을 수집함.
 - 가정 내 아동학대 재발이 빈번하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그렇다'라는 응답이 1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매우 그렇다'가 3명으로, 아동학대 재발이 빈번하다는 응답이 25명 중 15명임.
 - 학대행위자가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거나 고소하는 등의 행동을 취하여 아동을 가정에 빠르게 복귀시키는 경우 재학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함.



-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에게 보호종결 이후 사후관리의 핵심은 가정 적응, 가족관계 개선, 재학대 발생 여부 파악을 위한 상시적 혹은 주기적 모니터링임.
- 2020년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 이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수행하는 사후관리 업무의 변화에 대한 응답은 크게 가정복귀 절차 및 프로그램, 종결 전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지침 변경, 역할 및 업무 분장, 업무량 증가로 나타남.

정책 제언

- 사후관리 강화의 제도적 기반
 - 사후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관련한 세부사항에 대한 규정은 미비한 상황이므로 해당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원활한 사후관리 업무의 수행을 위해 현행 제재 수준을 강화할 필요
- 사후관리 강화의 세부과제
 - 보호조치가 종결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후관리에서 구체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조치사항과 그 방법에 대한 세부 규정 사항 마련
 - 피해아동 보호 및 치료와 피해아동 가정에 대한 지원 범위를 원가정복귀 아동까지 포함하여 제시할 필요
 - 원가정 복귀 후 시기별 가정 내 안전을 점검하기 위한 공통된 척도 및 도구개발 필요
 - 아동학대 관리를 위한 연계 및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앞서 제안한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공유와 아울러 기초 지자체 단위의 협의체 구성

유아의무교육 및 무상교육·보육의 쟁점과 과제

박창현, 김근진, 윤지연

배경 및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유아교육과 보육계에 이슈가 되는 유아의무교육, 유아무상교육(보육), 유보통합, 학제개편 등 유-보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이슈와 쟁점을 정리하고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미래 유-보 제도혁신의 기초자료와 정책 방안을 마련하는 것임.

연구방법

- 문헌조사
- 전문가 자문회의
- 정책토론회 개최

연구결과

- 미래 유아교육·보육 체제개편의 배경 및 정책 현황
 - 인구구조의 변화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미래 유아교육·보육 체제로의 개편, 유아교육과 보육의 국가책임제 강화와 높은 공공성, 양질의 교육·보육에 대한 요구, 코로나19 팬데믹과 미래 한반도 정세 변화를 대응하여 지속가능하고, 교육 평등성이 실현되는 새로운 미래 유아학교 체제 필요
 - 유아교육과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양질의 교육 보육 수준의 질적 제고를 위해서는 공교육화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잘 체계화된 제도하에 적재적소의 재정지원이 필수
 - 우리나라는 아직도 무상교육, 보육비 마련을 임시회계로 운영, 무상교육도 부분 무상교육과 보육임. 사립유치원의 경우, 학부모 부담금이 여전히 높은 수준, 무상교육과 보육의 기준과 현황도 서로 달라 교육보육의 격차로 교육평등성 저해
- 유아무상교육·보육 정책의 쟁점과 전망
 - (정책제안의 배경) 유아의무교육(기간학제화)을 실시하여 '유아학교'를 통한 국가완전책임제, 완전무상교육 실현 가능, 교육불평등 및 교육시스템의 획기적 개편, 저소득층 지원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유아 기간학제화 가능, 유아 무상교육 및 무상보육(어린이집) 제도의 실효성 저하, 유보 질적 격차의 실질적 완화 가능, 유아학교로서 실질적 역할 기대 가능
 - (쟁점과 이슈) 통합된 미래유아학교체제 구축을 위한 기반 마련 후 완전무상교육 실시가능, 유아학교 명칭 변경,



재원확보 구상 및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체계 개편, 유보 일원화 세부안 마련, 2026년 이후 완전무상교육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마련 가능, 표준유아교육비수준의 재정지원체제 정비, 완전무상교육정책 추진 시 자율형 사립유아학교를 인정해야 하는지의 여부, 사립 유아학교 재정지원 시 기준 마련

- (시나리오 기반 재정추계) 3~5세 유아무상교육 재정추계의 총합을 살펴보면, 연간 5조 6,065억 정도임.

• 유아 의무교육 정책의 쟁점과 전망

- (정책제안의 배경) 유아의무교육(기간학제화)을 실시하여 ‘유아학교’를 통한 국가완전책임제, 완전무상교육 실현 가능, 교육불평등 및 교육시스템의 획기적 개편, 저소득층 지원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유아 기간학제화 가능, 유아 무상교육 및 무상보육(어린이집) 제도의 실효성 저하, 유보 질적 격차의 실질적 완화 가능, 유아학교로서 실질적 역할 기대 가능

- (쟁점과 이슈) 유아 의무교육의 강제성 충족 여부, 유아 의무교육의 균등성의 충족 여부, 낮은 국공립 비율, 사립유치원 법인화 문제, 학부모 교육 선택권의 문제, 만 3세 의무교육 도입이 발달에 적합한지의 문제, 유보통합 시, 0~2세 포함의 문제

- (시나리오 기반 재정추계) 5세 의무교육 6조 1,308억원, 4~5세 의무교육 6조 6,758억원, 3~5세 의무교육 7조 2,540억원(2026년 기준)

미래 유아교육·보육 체제 개편을 위한 정책 제언

- 유아완전무상교육을 선행하고, 유아의무교육을 통한 유아학교 기간학제화의 방향으로 진행함.
- 유아완전무상교육을 진행하도록 유아교육체제 개편을 실시함. 이를 위한 전략으로는 유아학교로의 명칭 변경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필요성이 있음.
- 유아의무교육으로 가기 위해 국공립 비율 80% 확보를 고민하고, 어린이집의 사립 유아학교로의 전환을 위한 로드맵을 구성함. 이에 대한 구체안이 필요하며, 법 개정이 필요함.
- 미래 유아교육보육체제 개편을 위한 3단계 단계별 로드맵을 제안함.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 정비 방안

이정원, 조숙인, 엄지원, 이상인

배경 및 목적

- 2020년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
- 법정조사화된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의 적절한 조사 설계와 국가통계로 승인되기 위한 조건의 사전 준비를 목적으로 함.

연구방법

- 문헌연구를 통해 국가승인통계 추진을 위한 관련 법령 및 조건 분석, 유사한 국가승인통계의 조사 설계 분석
- 2018년 시범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 데이터의 주요 항목을 분석, 적정 표본규모 산정의 근거로 활용
- 통계 전문가의 자문회의 실시

연구결과

-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의 추진 일정(안)
 - 국가승인통계로 추진을 위해서는 통계청 관련 부서와의 논의시간도 2~3개월가량 고려해야 함.
 - 시범실태조사 설문지를 기초로 수정·보완하여 설문지 개발 및 확정은 '22년 6월, 표본설계는 7월, 통계승인 신청 및 승인을 '22년 8월을 목표로 추진해야 할 것임.
 - 실태조사는 '22년 9월 이내에 추진함
- 종합실태조사 추진을 위한 조사 설계: 표본규모(안)
 - 적정 표본규모를 모집단 정보와 표본설계에 반영할 주요 변수, 2018년 아이돌봄서비스 시범 실태조사 결과 분석을 통해 산정함.
 - 서비스 대상자 조사는 신뢰수준 95%에서 오차한계 0.05일 경우 4,598명으로 산정되며, 2018년 조사의 2,020명 이상 조사한다면 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더 높일 수 있음.
 - 이용가구 조사는 아동연령구간 및 가구소득유형별 이용아동 수의 모집단 정보를 이용시 신뢰수준 95%에서 오차한계 0.05일 경우 5,124명으로 산정되며, 2018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약 4,000가구 이상 조사 완료된다면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임.
 - 아이돌봄미 조사는 연령대, 지역별 활동돌봄미 수 등 주요 모집단 정보를 고려하고 신뢰수준 95%에서 오차한계 0.05일 경우, 2018년 주요 항목의 조사 결과값을 고려 시 5,000명 정도의 규모가 적절할 것으로 보임.



- 조사방법(안)

- 이용대상자 조사는 조사구 방식을 활용한 면접조사, 이용자 조사 및 아이돌보미 조사는 면접조사 또는 온라인 조사로 표본조사로 수행, 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 조사는 온라인 조사를 통한 전수조사로 수행

- 조사항목(안)

- 2018년 시범실태조사의 주요 조사 항목을 유지하며, 코로나19와 관련한 수요, 공급의 변화를 반영할 문항, 취약계층의 방과후 돌봄기관 관련 문항 등을 추가하며, 응답의 주관성이 높고 응답 결과의 정책적 활용도가 적은 ‘부담 가능한 최대 본인 부담액 수준’(이용자 조사), 미운영 서비스 유형(보육교사형 서비스)에 대한 항목 등은 삭제함.

정책 제언

- 이용대상자 조사는 아이돌봄서비스 수요추정 목적 활용은 부적절, 미이용자의 서비스 인지도, 이용을 못한 이유 파악하여 이용자 확대를 위한 정책 방향에 시사점 용도로 활용
- 이용자 조사는 서비스 유형별 상세한 이용 실태, 기타 돌봄서비스 이용 행태와 개선사항 요구 파악을 통해 이용자 입장에서의 아이돌봄지원사업 개선 정책 개발에 활용
- 아이돌보미 조사는 일자리의 주요 관심 대상층을 파악하여 일자리 제공 측면에서의 사업효과 측정과 양질의 일자리로의 개선을 위한 정책 방안 마련에 활용
- 서비스제공기관의 서비스 연계 업무 개선과 이용자, 아이돌보미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 개발에 활용

학부모안심유치원 정책성과 분석 및 확대방안

강은진, 구자연, 최윤경

배경 및 목적

- [국정과제 49-1] 유아교육 책임확대 3번 학부모 안심교육 인증제 도입을 위해 2018년부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학부모 안심유치원 사업을 추진해옴.
- 유치원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아동학대 및 감염병 예방, 급·간식 영양, 위생관리, 통학차량 및 시설·설비 안전관리 등을 점검하며 예산 지원과 컨설팅을 시행함.
- 2020년부터 17개 시·도교육청이 참여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 모든 유치원을 대상으로 적용할 계획을 수립함. 이에 따라 본 연구는 2018년 이후 시행된 학부모 안심유치원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확대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연구방법

- 문헌연구: 유치원의 건강·안전관련 법 및 규정 분석, 국내외 건강·안전관련 평가지표 분석, 학부모 안심유치원 계획·결과 보고서 및 우수사례 분석
- 학부모 안심유치원 관계자 및 학부모 FGI
- 학부모 안심유치원 참여 학부모 만족도
- 시·도교육청 협의체 구성 및 전문가 자문회의

연구결과

- 국내·외 '건강·안전' 평가 영역 비교
 - 유치원에 적용되는 건강·안전 규정: 교육기관으로서 적용되는 법령, 아동관련 시설로 적용되는 법령 등 여러 법령에 산재되어 있음.
 -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평가지표 비교: 시설·환경 부분은 유치원은 5개, 어린이집은 3개로 구성, 건강·안전증진 부분은 유치원 4개, 어린이집 6개로 관리, 급·간식영역은 유치원 평가지표에서 급·간식 시간과 이후관리에 대한 부분이 별도 포함됨.
 - 호주, 미국, 뉴질랜드, 영국, 핀란드의 평가지표 중 건강·안전 부분을 분석. 유아의 심리적 안전, 아동학대 관리, 기본적 구조적 질에 대한 관리의 중요성 및, 기준 충족 요건으로 건강·관리 영역이 관리됨을 알 수 있었음.



- 17개 시·도교육청 학부모 안심유치원 추진 현황 및 성과
 - 2021년 기준 전국 390개원이 학부모 안심유치원에 참여. 해당 시도의 4.7%~41.8%가 참여중임. 각 시·도교육청의 학부모 안심유치원 추진 방법 및 컨설팅 운영의 특이성이 존재함.
 - 면담 자료 분석 결과 학부모 안심유치원 추진 시 '컨설팅'에 대한 언급이 가장 많았으며, 학부모의 신뢰회복과 교직원의 인식 개선 등을 성과로 평가함.
 - 학부모 만족도 조사결과 모든 항목에서 5점 만점의 4점 중반대 이상의 만족도를 나타냄.
 - 우려점: '학부모 안심유치원' 사업명과 인증제에 대한 거부감, 안심유치원 선정을 위한 평가에 대한 부담, 선정 유치원의 홍보 수단 활용과 타 유치원의 관리, 컨설턴트 인력풀 구성의 어려움, 학부모 안심유치원 선정 기준과 유치원 평가지표의 중복성
 - 확대를 위한 개선점: 예산 지원과 사업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 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한 중장기 계획과 집중 투자 필요, 교육청의 협조, 컨설팅 인력 확대 및 구축, 학부모 안심유치원의 평가지표 재정비, 전체 확대 시 단계적 지원 방안 필요

정책 제언

- 학부모 안심유치원의 사업의 목적은 '모든 유치원이 안심할 수 있는 유치원 문화 조성'으로 추진할 것 제언
 - 안심환경 조성을 위한 단계적 운영 모델 제언
 - Ⅰ 유형(진입단계): 건강·안전 관리 분야 개선 필요 유치원, 유치원평가지표 등을 활용 해당 영역 집중 컨설팅
 - Ⅱ 유형(발전단계): Ⅰ 유형 유치원 중 관리 및 개선 유치원. 유지관리 모니터링+개선을 위한 지원
 - Ⅲ 유형(확산단계): Ⅱ 유형 유치원 중 강화된 지표(안) 적용 유치원, Ⅱ 유형 유치원 중 강화된 지표(안) 적용 유치원
 - 안심문화조성 컨설팅단 운영 및 학부모안심유치원 확대를 위한 강화된 지표(안)개발
- 학부모 안심유치원 확대 방안으로 학부모 및 유치원 대상 성과공유 및 홍보 확대, 학부모 안심유치원 공통 플랫폼을 통한 원격 컨설팅 운영, 신규유치원 및 개보수 유치원 대상 가이드라인 제공을 제언
- 마지막으로, 안전한 유치원 환경을 위한 하루일과 운영 등 상황별 교사 대 아동비율 지침 마련을 제언

공립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 성과와 발전방안 연구

문무경, 김동훈, 정도영

배경 및 목적

- 여성의 사회 참여에 따른 가정의 자녀 양육지원에 대한 요구 증대에 부응하여 맞벌이 가정의 양육 지원과 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자 공립유치원 방과후 과정은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 및 질 제고를 위하여 노력해 옴.
- 방과후 과정의 확대와 내실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급편성의 적절성 문제, 방과후 과정 운영을 위한 제반 시설·설비 여건 미흡, 적합한 프로그램의 성격, 교사 대 유아 비율 문제, 방과후 과정 전담인력의 자격 및 배치기준과 업무 등 관련 당면현안이 산재해 있음.
- 본 연구는 공립유치원의 방과후 과정 운영 현황, 관련 현안 및 성과를 파악하고, 향후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연구방법

- 17개 시·도교육청 방과후 과정 운영 현황 조사
 - 시·도교육청별 공립유치원 방과후 과정 기본 현황(방과후 과정 운영 유치원 수, 이용 유아 수, 전담인력 현황, 운영시간, 프로그램, 관리점검 등) 및 시·도별 방과후 과정 운영 관련 우수사례와 특색사업, 우선과제 등
- 설문조사: 수도권(서울, 경기)을 중심으로 실시, 1) 공립유치원 총 268개원(단설 87개원과 병설 181개원), 2) 방과후 과정 전담인력 총 380명(단설 100명, 병설 280명), 3) 방과후 과정 이용 유아 학부모 총 574명(단설 223명, 병설 251명) 참여
- 심층면담: 2~4명 내외 소규모집단(온/오프라인) 심층면담, 총 11회 실시

연구결과

- 기본 현황(시·도교육청 조사 결과)
 - 전체 유아 대비 방과후 과정 참여 유아비율이 '20년 81.4%로, '19년에 비해 3.4% 상승함.
 - 다수의 시·도교육청이 7~9시에 아침 돌봄과 19시까지 오후 돌봄을 운영함.
 - 17개 시·도교육청 공립유치원 방과후 과정 전담인력은 총 10,138명(단설 3,240명, 병설 6,898명)으로 조사됨.
 - 방과후 과정 운영에 대한 업무 매뉴얼은 있으나(없는 시·도교육청은 대구, 대전, 충남, 전북, 강원, 경북, 경남 총 7개), 전담인력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에 대한 지침은 없는 시·도교육청이 더 많음.
- 17개 시·도교육청 조사 결과도 유사하게 공립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의 가장 대표적 성과로 맞벌이 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양육 부담 경감 및 서비스 질 개선을 통한 학부모 만족도 제고로 나타남.



- 이외에도 놀이와 심 문화 확산, 방과후 과정 참여율 증가 등
- 공립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 실태 및 개선 요구: 서울,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 오후 재편성 혼합연령반이 59.0%로 가장 많음. 전체적으로 기관당 방과후 과정 평균 교실 수 2.9개, 유아 수 49.1명임.
 - 방과후 과정은 오후 1시 26분경에 시작하여 오후 6시 25분경 종료함(총 운영시간은 4시간 59분).
 - 방과후 과정 운영의 가장 큰 어려움은 기관의 경우 대체인력 구인의 어려움 36.9%〈구성원간 업무 갈등 22.4%, 전담인력 1인 대 돌봄 유아의 비율 높음 17.9% 순으로 나타남.
 - 학부모의 경우, 특성화 프로그램(3.7점)에 대해 가장 많은 개선이 필요함.

정책 제언

- 향후 방향성
 - 유아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발달을 보장하도록 방과후 과정 운영, 취약계층 유아에게 우선적으로 방과후 과정 이용기회를 제공하고 및 포괄적인 지원 제공, 맞벌이 부모 등 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요구 적극 수용, 국공립유치원, 초등학교,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돌봄의 협업체계 구축
- 정책과제
 - 유치원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의 통합 교육과정 운영
 - 유치원 방과후 과정 이용대상 범위 확대,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시간 다양화와 자율화
 - 양질의 방과후 과정 운영을 위한 교사 지원체제 구축(1학급 1일 2명의 교사 지원, 유치원 규모별 비담임교사 지원, 특수교육 교사 배치, 방과후 과정 전담인력 전문성 연수 체계화)
 - 방과후 과정반 적정 유아 수 기준 마련, 방과후 과정 전담인력 배치 기준 마련
 - 부모수요를 반영한 예체능 중심 특성화프로그램 운영, 방과후 시설환경 스마트화 등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현황 및 개선 방안 연구

이재희, 조미라, 최은경

배경 및 목적

-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청소년기 임신과 출산은 청소년 산모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 많은 청소년 산모가 출산 의료비 지원 사업에 신청조차 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소년 산모에게 활용성이 높지 않다는 의견이 꾸준히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사업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향후 사업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것임.

연구방법

-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사업, 임신·출산 지원사업, 청소년 산모 자립 지원 사업, 미혼모 지원 사업 등 유관 사업 검토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 청구자료
- 만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 대상으로 심층 면담 진행

연구결과

- 청소년기 출산의 문제점
 - 청소년기 임신은 신체적 건강문제, 신생아 건강 및 양육 문제, 학업중단 및 취업 중단문제 등 다양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
 - 청소년 산모는 산전·산후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나타남.
- 청소년 산모 관련 지원 정책
 - 청소년 산모가 수혜 가능한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는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사업,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사업, 고위험 산모 의료비 지원사업임.
 - 청소년 산모 대상 지원 정책은 상대적으로 임신·출산 전후기에 관리가 어려운 청소년 산모의 특성 때문에 관련 정책 이용도가 떨어질 것으로 판단됨.
-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실태 및 지원 요구
 - 청소년 산모의 경우 출산에 도움을 주는 사회적 지원체계가 부족함.
 - 심층 면담에서도 임신 첫 진료기가 매우 늦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비용 부담에 대한 우려, 출산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었음.



- 청소년 산모 및 영아 진료비 실태
 - 출산 후 2년 동안 소요 되는 임신·출산·영아 의료비를 비급여 및 약제비까지 포함하여 추정한 결과 자연분만의 경우에는 2,636,146원, 제왕절개인 경우에는 3,385,058원이었음.

정책 제언

- 청소년 산모 정책은 건강한 생의 출발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지지체계를 발굴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청소년 자립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
- 청소년 산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차별이 있었는지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고 사회인식의 전환이 필요함.
- 현재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금액을 200만원, 출산 후 3년 동안, 만 24세 산모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향이 필요함.

OECD 국가 사례분석을 통한 유아교육에서의 디지털 기술 활용 방안 연구

문무경, 정호연

배경 및 목적

- 본 연구는 교육부의 OECD 신규사업 ‘디지털시대의 유아교육(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in a Digital World)(2021-2023)’에의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수행됨.
- 디지털 기술 활용에 대한 OECD국가들의 접근 방식과 정책사례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유아교육에서의 디지털 기술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연구방법

- OECD ECEC Network 정기회의 및 주제별 웨비나(Thematic webinar) 참여를 통한 OECD 국가사례 수집 및 분석
- 17개 시·도교육청 유아 원격교육 및 디지털 기술 활용 관련 현황 조사
- 자문회의 및 정책실무협의회 개최

연구결과

- 시·도교육청의 유아교육 디지털 기술 활용 현황
 - 유아 원격교육 유형으로 교육 동영상 및 콘텐츠 시청, 실시간 쌍방향, 강의형 교육, 놀이꾸러미 활용 등의 방식을 제공함.
 - 누리과정포털(i-누리)과 같은 교육부 주체 콘텐츠, EBS 제작 콘텐츠, 각 시·도교육청 자체 제작 콘텐츠를 주로 활용
 -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디지털 플랫폼은 줌(ZOOM)과 유튜브로, 대부분 여러 플랫폼을 혼용하여 사용함.
 - 디지털기술 활용과 관련된 가장 큰 문제점으로 ‘가정에서 아이 활동을 도와주기 위해 필요한 부모 또는 보호자의 시간 부족’, ‘유아용 디지털 학습 기술 및 자료 부족’, ‘유아 디지털 기술 사용에 대한 교사들의 불신(저항)’ 순으로 나타남.
 - 향후 우선과제로는 유아교원의 디지털 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디지털 플랫폼 구축 등이 높게 나타남.
- G20 국가 설문조사 주요 결과
 - 60%의 국가가 유아가 스크린에 노출되지 않고 부모와 디지털 자료를 공유하는 것이 매우 주요한 것으로 응답함.
 - 80%의 국가가 유아가 원격교육의 일환으로 디지털 기술을 1일 평균 1시간미만으로 활용함.



- 유아원격교육을 지원하는 부모 역량 문제, 시설설비, 디지털 기기 부족, 인터넷 연결 문제와 아울러 특히 유아를 위해 고안된 디지털 콘텐츠 부족 문제를 지적함.
- 정책적 권고로 1) 유아교원 대상 디지털 기술 관련 전문성 강화, 2) 디지털 기술 활용 관련 유아교육과 초등저학년 교육의 연계 강화, 3)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위한 여러 방안 통합(부모와 교사 지원 필요), 4) 테크놀로지 사용의 효과성 평가 메커니즘 개선을 제시함.

정책 제언

- 최우선으로 유아교원 디지털 역량의 필요성에 대한 합의 및 연수 강화
 - 원격수업 및 디지털 역량 연수의 필요성 자체에 대한 합의가 필요, 연수내용에 디지털 기술 활용의 이론적 기초 및 윤리적 활용 강조
- 디지털 디바이드(digital divide) 완화를 위한 취약계층 유아와 가정에 대한 우선적 지원
 - 취약계층유아 대상으로 가장 효과적인 교수법 규명 필요
- 국가순준 누리과정에 디지털 기술 활용 명시 및 교수법 강화
- 유아대상 플랫폼에의 접근성 제고(인프라) 및 디지털 콘텐츠 개발 확대
- 유아대상 효과적인 디지털 기술 규명 및 활용
- 유아원격교육과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지원 강화
 - 개별유아의 변화 및 진전도를 추적 필요

탈북 여성의 일·가정 양립 현황과 지원방안

이윤진, 최은경

배경 및 목적

- 우리사회의 탈북여성과 결혼이민자 여성은 “이주”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음. 그런데 두 여성 집단의 경제활동 자료를 비교하면, 결혼이민자 여성의 경제참가율과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음.
- 본 연구에서는 돌봄이 필요한 어린 자녀(영유아~초등학생 저학년 이하)를 둔 탈북 여성 중 일·가정 양립을 안정적으로 하고 있는 사례들에서 가능요인을 분석하고, 같은 조건의 결혼이민자 여성의 정책 및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탈북 여성의 일·가정 양립에 필요한 실질적 지원방안을 모색함.

연구방법

- 문헌연구, 연구협력진 구성, 전문가 자문회의, 정책연구실무협의회
- 심층면담조사: 어린 자녀(영유아~초등학생 저학년 이하)를 키우면서 취업 활동 중인 북한이탈주민 여성 5명과 결혼이민자 여성 5명을 심층 면담함.

연구결과

- 인구규모
 - 탈북민 총 33,788명(2021년6월 기준) 중 여성이 72%임. 결혼이민자 총 168,594명 중 여성이 약 89%임.
- 결혼 및 현재 배우자 유무
 - 탈북 여성은 입국 후 재혼, 삼혼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결혼이민자 여성은 초혼이 대부분임.
 - 현재 탈북 여성 약 46.4%, 결혼이민자 여성 약 74%가 배우자가 있음.
- 출산과 양육
 - 탈북 여성은 늦은 나이에 출산하는 사례가 적지 않음. 동일조건(어린자녀를 둔)의 심층면담조사 참여자들의 평균 연령을 보면, 탈북 여성은 41.8세, 결혼이민자 여성은 31.8세임.
 - 결혼이민자 가정의 자녀수는 1.02명, 탈북 가정은 생계를 같이하는 가구원수가 평균 2.3명임(공식적인 자녀 수 데이터 부재).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가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경우, 가사나 육아를 지원하는 경우 탈북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한층 더 지지함.



• 취업현황

- 두 여성 집단 모두 높은 근로의욕과 건강하다는 공통점을 지님. 배우자와 자녀 건강도 일할 수 있는 중요 조건임.
- 두 여성 집단 대부분 임금근로자로 일하며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고 직장, 교육·보육기관, 집과의 거리가 가까움.
- 대부분 최저임금으로 일함(4대보험을 제외하면 월 200만원 미만). 이보다 더 벌려면 야근, 특근을 해야 하는데 자녀돌봄 공백시간이 커져서 자녀의 안전, 식사, 학습지원을 소홀히 하게 될 가능성이 커지는 딜레마에 놓임.
- 어린이집 이용 자녀는 등하원을 주양육자(엄마)가 함. 반면, 초등학생 자녀는 등하원을 혼자하는 경우가 많음. 하교 후, 초등돌봄교실(최대 4~5시까지 이용), 학원에서 주양육자가 퇴근해서 올때까지 돌봄공백시간을 메꿈.

정책 제언

- 일하는 탈북 여성, 결혼이민자 여성 모두 어린이집·유치원이 자녀양육의 큰 버팀목임. 어린이집 1순위 입소 순위 자격에 탈북 가정의 영유아를 명시할 것을 제안
- 어린이집의 연장반(17시 이후) 이용 시 아이를 맡기면 기관에 눈치가 보이는 경우가 많음. 어린이집의 연장반 운영이 자연스런 문화가 되도록 캠페인 홍보 및 전담인력 배치 등의 지속적 지원 필요
- 등하교를 혼자 하는 초등 저학년 자녀가 있는 탈북 가정에게 아이돌보미서비스의 우선적 제공
- 두 집단 여성들 대부분은 취업정보를 지인 소개나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취득함. 고용센터, 하나센터, 새일센터 등과 같은 공신력있는 공공기관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필요
- 남한에 입국하는 탈북민이 감소하는 추세이며 예전에 온 탈북민들은 결혼, 출산하는 등 모집단의 성격이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에 탈북 여성, 탈북 가정, 자녀양육 관련 정책 비중을 늘릴 것을 제안

빅데이터에 기반한 육아정책 쟁점과 향후 과제

김동훈, 이재희, 장현진

배경 및 목적

- 육아정책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부족한 빅데이터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육아정책에 대한 아이디어 발굴이라는 새로운 접근방식에 대해 논의하고자 함.

연구방법

- 문헌분석
 - 빅데이터 개념, 빅데이터 관련 법 및 정책추진현황, 빅데이터 활용 선행연구 등에 대한 문헌분석 실시
- 빅데이터 통계분석: 어린이집, 유치원 안전·관련 공공빅데이터, 육아카페(맘스홀릭) 게시물과 KCI 논문초록 분석
 - 빅데이터 분석도구로는 R과 파이썬을 사용하였고 빅데이터 분석 전문업체와의 협력하여 수행
- 전문가 회의

연구결과

- 공공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영유아 안전·환경 분석
 - 유치원·어린이집 인근 대기 질은 수도권과 대도시, 공장 등 산업시설이 많은 곳에서 전반적으로 대기질이 나쁨.
 - 위험시설은 전국적으로 유치원은 평균 2.3개, 어린이집은 평균 2.4개의 위험시설이 반경 500미터 내에 있었음.
 - 영유아 보육·교육시설의 수소이온농도, 잔류염소, 탁도 수치는 법적 기준은 모두 충족하고 있었음.
- 육아카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육아현안 분석
 - 맘스홀릭 맘카페 게시물 중 임신·출산 정책, 육아·돌봄, 보육·교육 등 키워드 검색, 수집 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분석게시글 수는 69,836개중 48,155개임.
 - 15개의 토픽을 도출함: 1) 피부·건강제품 추천, 2) 식사·간식, 3) 질병·치료, 4) 제품 할인 및 온라인 구매, 5) 제품 추천 및 추천요청, 6) 아이와 엄마의 휴식, 7) 아이 선물 및 이유식, 8) 휴일과 외출, 9) 커피와 휴식 및 디지털, 10) 날씨, 11) 시간 사용, 12) 아이 및 엄마 공부, 13) 엄마 여가시간 및 아이 사진촬영, 14) 일상과 날씨, 15) 운동 및 다이어트
- 학술논문 분석을 통한 육아정책 연구동향 분석
 - 분석대상은 임신, 출산, 어린이집, 유치원, 육아, 돌봄, 보육, 유아, 영아, 아동 10개 키워드를 포함한 KCI 논문초록으로, 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21년 11월 3일까지이며, 27,544개의 논문초록을 분석함.



- 15개의 토픽을 도출함: 1) 저출산 대응 및 돌봄정책, 2) 유아교사 연수, 3) 공동체 돌봄, 4) 다양성 교육, 5) 아동 놀이 및 예술, 6) 아동 장애 치료, 7) 유아 교과 교육, 8) 아동인권, 9) 출산과 육아, 10) 교사 직무 만족도, 11) 아동 정서, 12) 부모의 양육과 정서, 13) 유아 정서 발달, 14) 교사 및 아동 정서, 15) 영유아 신체 및 정서 발달

정책 제언

- 육아 안전·환경 종합 평가항목 개발과 체계 마련 필요
 - 아이를 키우기 좋은 육아환경은 무엇이며, 안전을 기반으로 위험시설은 어떤 것이 있고, 영유아가 생활하는 생활권 단위에서 필요하고 개선되어야 하는 안전한 육아환경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 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속해 있는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육아 안전·환경 평가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영유아의 부모를 위한 육아지원정책 강화
 - 그동안 임신, 출산, 양육 등에 관하여 아이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져 왔고 향후에는 임신, 출산, 양육의 주체인 엄마아빠 등 양육주체들을 고려한 지원정책이 향후 좀 더 강화되고 보완될 필요가 있음.
 - 부모가 함께하는 돌봄이 가능하도록 시간지원정책의 실질적 이용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양육의 주체인 부모 대상 지원 신체, 심리, 정신 건강 프로그램 강화가 필요함.
 - 국가의 공적 책임 강화를 통한 보육 및 돌봄서비스의 질 제고가 필요함.
- 육아지원정책을 위한 향후 연구과제
 - 영아 및 부모 관련 연구 강화, 저출생 대응을 위한 돌봄 지원 확대 연구, 개정 누리과정에 대한 교사연수 및 협력 네트워크 지원 확대 연구, 교사 및 영유아 대상 문화다양성 교육 및 지원 강화 방안 연구, 영유아, 아동의 교육과 안전, 아동의 주거 환경, 아동의 신체적 건강, 교사와 부모의 배움, 소득, 힐링 등 관련 연구

육아정책 관련 연구성과를 홍보 및
확산하기 위해
국내·외 세미나 개최, 간행물 발간,
정책 네트워크 운영 등에
힘쓰고 있습니다.

2021년도 주요활동

- 주요 행사
- 주요 간행물

육아정책 심포지엄

육아정책 심포지엄은 유아교육과 보육 관련 주요 현안과 쟁점에 대한 원내·외 전문가들의 연구동향 공유 및 토론을 통한 정책대안 도출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소의 주요 학술행사이다. 2021년도 육아정책 심포지엄은 총 3차에 걸쳐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되었다. 북한 아동, 팬데믹, 디지털 교육·보육과 관련된 육아정책 논의를 위하여 전문가를 초청하고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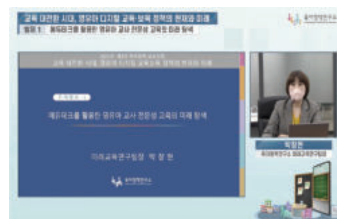
구분	일시/장소	주제	공동주최기관	주요 참석자
제1차	2021. 5. 27(목) 육아정책연구소 대회의실, 온라인 생중계(YouTube)	남북한 어린이의 교육·보육 현황과 미래 발전방안	강득구 의원실	발표 박창현 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이윤진 선임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토론 최민수 이사장(코리아통합연구원) 박태준 사무관(경기도교육청) 조성은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혜경 사무총장(어린이어깨동무)
제2차	2021. 7. 14(수) 육아정책연구소 대회의실, 온라인 생중계(ZOOM)	팬데믹과 양극화 시대, 육아정책의 대응력과 형평성 제고 방안 모색		발표 김동훈 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최윤경 선임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토론 정재훈 교수(서울여대) 김선숙 센터장(아동권리보장원) 권혜진 교수(나사렛대) 최일선 교수(경인교대)
제3차	2021. 12. 16(목) 온라인 생중계 (YouTube)	교육 대전환 시대, 영유아 디지털 교육 보육 정책의 현재와 미래		발표 박창현 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이정원 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토론 정영식 교수(전주교대) 박영현 장학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정정희 교수(경북대) 정윤경 교수(가톨릭대)



제1차 육아정책 심포지엄



제2차 육아정책 심포지엄



제3차 육아정책 심포지엄

KICCE 육아정책 연구생태계 포럼

육아정책연구소는 다학제간 융·복합 연구기반을 통한 선도적 육아정책 개발과 선제적 이슈 발굴 등을 위해 유관 부처, 연구기관, 학회, 시민단체, 언론 등 39개 기관으로 구성된 육아정책 연구생태계 포럼을 운영하고 있다. 2021년 제1차 포럼에서는 유아교육·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적 갈등 및 격차 완화 방안을 주제로 육아정책 연구생태계 기관의 대응 방안을 발표하였다. 연구소 창립 15주년 기념식과 함께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된 제2차 포럼에서는 아이행복, 육아행복의 관점에서 본 육아정책의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구분	일시/장소	주제	주요 참석자
제1차	2021. 7. 1(목) 명동포스트타워 스카이홀	유아교육·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적 갈등 및 격차 완화 방안	발표 김은영 선임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양미선 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참석 김경철 회장(한국유아교육학회) 심미경 회장(한국아동학회) 이병래 회장(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최혜영 회장(한국보육지원학회) 최윤정 학술부장(한국육아지원학회) 손인숙 회장(한국모자보건학회) 우영혜 회장(한국국립유치원교원연합회) 위성순 회장(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 이종규 회장(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조선경 회장(전국장애아통합어린이집협의회)
제2차	2021. 11. 25(목) 명동포스트타워 스카이홀	차기 정부에 바라는 육아정책 방향: 현장과 전문가의 목소리	발표 김근진 부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문무경 선임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고완석 팀장(굿네이버스) 김승언 대표(터치아이발달센터) 김지수 부장(한국건강가정진흥원) 장화정 본부장(아동권리보장원) 조선경 회장(전국장애아통합어린이집협의회) 최진숙 회장(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



제1차 KICCE 육아정책 연구생태계 포럼



제2차 KICCE 육아정책 연구생태계 포럼

KICCE 정책토론회

육아정책연구소는 다양한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 제8차에 걸쳐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제2차~제5차, 제8차 행사는 ‘대한민국의 미래 유아교육·보육 체제개편을 위한 연속 토론회’로 진행되었으며, 교사노동조합연맹, 강득구 의원실 등과 함께 유아교육·보육 관련 의제에 대한 논의를 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구분	일시/장소	주제	공동주최기관	주요 참석자
제1차	2021. 9. 9(목) 온라인(ZOOM)	아동학대 재발방지를 위한 시스템 강화 방안 모색		발표 김나영 부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토론 강동욱 교수(동국대) 김현경 교수(연세대) 곽영호 교수(서울대병원) 심익선 차장(아동권리보장원) 류정희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2차	2021. 9. 30(목) 육아정책연구소 대회의실, 온라인 생중계(YouTube)	대한민국의 미래 유아교육·보육 체제 이대로 괜찮은가?	육아정책연구소, 교사 노동조합연맹, 강득구 의원실, 강민정 의원실, 권선동 의원실, 김병욱 의원실, 윤영덕 의원실	발표 박창현 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윤지혜 위원장(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토론 조형숙 교수(중앙대)김은희 원장(대유유치원)
제3차	2021. 10. 22(금) 육아정책연구소 대회의실, 온라인 생중계(ZOOM, YouTube)	미래교육을 위한 학급당 유아 수	육아정책연구소, 교사 노동조합연맹, 사교육 없는세상, 강득구 의원실, 강민정 의원실, 김민석 의원실, 김병욱 의원실, 김종민 의원실, 윤영덕 의원실, 이은주 의원실	발표 우영혜 회장(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윤지혜 위원장(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왕정희 위원장(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유치원위원회) 김경미 위원장(한국사립유치원연합회 정책조정위원회) 이주원 원감(한국유치원총연합회 소속 도담유치원) 이종규 회장(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함미영 지부장(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지부장) 도승숙 부지부장(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경기지부)
제4차	2021. 11. 18(목) 명동포스트타워 1006호, 온라인 생중계(ZOOM, YouTube)	미래 유아학교 교육과정의 방향은?	육아정책연구소, 교사 노동조합연맹, 사교육 없는세상, 전국특수교사 노동조합, 강득구 의원실, 강민정 의원실, 김민석 의원실, 김병욱 의원실, 김종민 의원실, 윤영덕 의원실	패널 김명하 교수(안산대) 이경진 위원(전국국공립유치원노동조합 유치원위원회) 윤지혜 위원장(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이주원 중앙이사(한국유치원총연합회) 김현숙 회장(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 장복순 원장(재미난어린이집) 이지희 교사(후암어린이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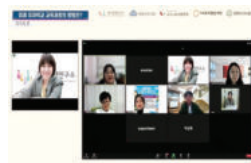
제1차 KICCE 정책토론회



제2차 KICCE 정책토론회



제3차 KICCE 정책토론회



제4차 KICCE 정책토론회

구분	일시/장소	주제	공동주최기관	주요 참석자
제5차	2021. 12. 10(금) 교사노조연맹 회의실, 온라인 생중계(ZOOM, YouTube)	미래 유아특수교육의 방향과 과제는?	육아정책연구소, 교사 노동조합연맹, 전국유아 특수교사연합회, 전국 특수교사노동조합, 강득구 의원실, 강민정 의원실, 김민석 의원실, 김병욱 의원실, 김종민 의원실, 윤영덕 의원실	패널 박계신 교수(나사렛대학교) 윤신명 교사(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정혜정 장학사(서울특별시교육청) 정현주 조합원(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김혜영 사무처장(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 심솔비 정책위원장(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
제6차	2021. 12. 15(수) 육아정책연구소 대회의실, 온라인 생중계(ZOOM)	2019 개정 누리과정 모니터링 및 지원방안 연구 (II) 정책토론회		발표 김은영 선임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토론 이성희 교수(공주대 유아교육과) 권혜진 교수(나사렛대 아동학과) 윤미경 원장(푸른아이세상어린이집) 신두원 교사(서울문창초등학교병설유치원) 송영태 학부모 김민정 장학사(인천광역시교육청) 정경진 센터장(충청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
제7차	2021. 12. 13(월)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북한이탈주민 가정 영유아 양육환경 진단과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토론회	육아정책연구소, 이용선 의원실, 신현영 의원실	발표 이윤진 선임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토론 김화순 연구위원(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박예영 이사장(통일코리아협동조합) 김선숙 센터장(아동권리보장원 아동정책평가센터) 권수현 대표(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양철수 과장(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 이승현 과장(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김진근 과장(통일부 정착지원과)
제8차	2021. 12. 30(목) 국회 제1세미나실, 온라인 생중계 (ZOOM, YouTube)	미래 유아학교 10대 교육 의제	육아정책연구소, 교사 노동조합연맹, 강득구 의원실, 강민정 의원실, 김종민 의원실, 윤영덕 의원실	발표 문미옥 의장(유아교육대표자연대) 우영혜 회장(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박영란 회장(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이중규 회장(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박다솜 유아부위원장(서울교사노조) 김현숙 회장(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 토론 성기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교육대전환위원회) 장명림 자문위원(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교육정책분과) 송경원 위원(정의당 정책위원회) 고효선 국장(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제5차 KICCE 정책토론회



제6차 KICCE 정책토론회



제7차 KICCE 정책토론회



제8차 KICCE 정책토론회

주요 간담회 및 KICCE DATA 콜로키움

육아정책연구소는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기 위하여 현장간담회 및 정책간담회를 총 3회 개최하였다. 초등 저학년 부모의 고충과 정책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전국시군구육아종합지원센터, 한국 어린이집총연합회와 함께 한 정책간담회를 통하여 영유아 교육·보육 현안 및 지속적인 협력 도모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2021년에는 데이터연구센터의 향후 연구주제 및 데이터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차에 걸쳐 KICCE DATA 콜로키움을 신설 개최하였다

현장간담회

구분	일시/장소	대상	주요 참석자
제1차	2021. 5. 28(금) / 온라인(ZOOM)	초등저학년 학부모	초등저학년 학부모 5명

정책간담회

구분	일시/장소	대상	주요 참석자
제1차	2021. 3. 11(목)	전국시군구육아종합지원센터협의회	전국시군구육아종합지원센터협의회 김현익 회장, 김은숙 부회장, 채은화 부회장, 서영미 호남충청권역 대표, 백소영 총무
제2차	2021. 4. 13(화) 육아정책연구소 대회의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이종규 총회장, 정인자 국공립분과위원장, 최유미 법인·단체등분과위원장, 박희숙 직장분과위원장, 김경숙 민간분과위원장, 박명하 가정분과위원장, 윤준수 시도연합회협의회장, 조성열 사무총장, 류호영 부장

KICCE 육아정책 DATA 콜로키움

구분	일시/장소	대상	주요 참석자
제1차	2021. 9. 15(수) / 온라인	연구직	발표 임후남 본부장(한국교육개발원 국가교육통계연구본부)
제2차	2021. 11. 23(화)	연구직	발표 박영규 소장(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보장데이터연구소)



제1차 전국시군구육아종합지원센터협의회 정책간담회



제2차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정책간담회



제2차 KICCE 육아정책 DATA 콜로키움

국제세미나

육아정책연구소는 국제교류의 일환으로 2021년 제4회 KICCE 아태지역 육아정책 개발협력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피지 교육부의 요청으로 진행되었으며, 피지 교육부와 산하 9개 지역교육청 유아교육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연수 형태로 이루어졌다. 주한덴마크대사관과는 3월, 9월 2회에 걸쳐 세미나를 진행하였으며, The LEGO Foundation과는 놀이를 통한 영유아기 학습과 발달 지원 관련 현황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교육부와 OECD 교육국이 개최하고 육아정책연구소 주관으로 진행된 'KICCE-OECD 웨비나'에서는 유아를 위한 디지털 기술 활용에 관한 주요 이슈와 향후 과제를 논의하였다. 그리고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미국, 독일, 한국 3개국의 코로나19 대응 영유아 교육·보육 정책에 대한 비교와 정책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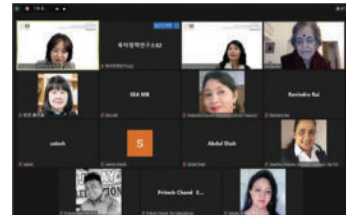
구분	일시/장소	공동주최기관	주요 참석자
주한덴마크대사관 국제세미나	2021. 3. 5(금) 육아정책연구소 대회의실		발표 Nina Monrad Boel 박사(주한덴마크대사관)
덴마크-한국 출산율 제고 국제세미나	2021. 9. 8(수) 주한덴마크대사관		발표 문무경 선임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토론 이상림 박사(건강보험심사평가원) Pia Ekbohm 박사(The Danish Patient Safety Authority) 홍순철 교수(고려대) Søren Ziebe 박사(University Hospital of Copenhagen) 주창우 박사(서울마리아병원) Helene Cagara Bækgaard(Danish Infertility Association)
제4회 KICCE 육아정책 개발협력 세미나: 국가수준 유아교육과 정의 내용과 평가(Learning Contents and Assessment in Early Childhood Curriculum)	2021. 11. 24(수) 온라인(ZOOM)		발표1 Kiyomi Akita 교수(일본유아교육학회장, 가쿠슈인대 교수, 동경대 명예교수) 발표2 Venita Kaul 교수(Ambedkar University, India, 전 World Bank 전문위원) 발표3 문무경, 김은영 선임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주한덴마크대사관 국제세미나



덴마크-한국 출산율 제고 국제세미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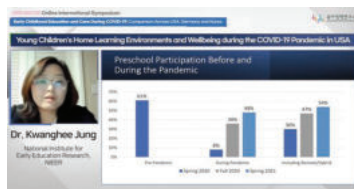
제4차 KICCE 육아정책 개발협력 세미나

국제세미나

구분	일시/장소	공동주최기관	주요 참석자
LEGO Foundation 웨비나: Learning through Play	2021. 12. 3(금) 온라인(ZOOM)	The LEGO Foundation	발표 Bo Stjerne Thomsen, Vice-President(Chair of Learning Through Play) 김은영, 강은진, 문무경 선임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토론 Sharmane Tan, GPA Senior Consultant(The LEGO Group)
KICCE 국제 심포지엄: 코로나19 대응 영유아 교육·보육 국제비교: 미국, 독일, 한국	2021. 12. 3(금) 온라인 생중계 (YouTube)		발표 Kwanghee Jung 박사(National Institute for Early Education Research, NIEER) Franz Neuberger 박사(Deutschen Jugendinstituts, DJI) 조숙인 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토론 정가윤 교수(명지대 아동학과) 김지원 박사(서울대 사범대학 협동과정) 김자연 부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KICCE-OECD 웨비나: Using Digital Technologies for Young Children	2021. 12. 15(수) 온라인 생중계 (ZOOM)	주최 교육부, OECD 교육국 주관 육아정책 연구소	발표 Andrea Schleicher, Directorate(Education and Skills, OECD) Marina Bers, Prof.(Child Development and Computer Sciences, Tufts University, USA) Liisi Hakalisto, Senior Specialist(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 Finland) Cristina Stringher, Researcher(Italian National Institute for Educational Evaluation, Italy)



LEGO Foundation 웨비나



KICCE 국제 심포지엄



KICCE-OECD 웨비나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육아정책연구소는 10월 1일(금) 비대면 방식으로 제12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 맞추어 제1부는 YouTube 생중계, 제2부는 사전등록 후 ZOOM 웨비나로 실시하였다. 학술대회 논문발표는 아동발달, 학교생활 및 적응, 부모양육 및 미디어의 3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정익중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신나리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박혜원 울산대학교 아동가족복지전공 교수, 이희선 가천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 도미향 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조성연 호서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가 각 주제별 좌장으로 발표 및 토론을 이끌었다.

구분	일시/장소	주요 참석자
제12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2021. 10. 1(금) 온라인 생중계 (YouTube, ZOOM)	주제발표 김지현 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김동훈 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논문세션 아동발달, 학교생활 및 적응, 부모양육 및 미디어 세션 총 18개 논문 발표



제12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정책세미나

육아정책연구소는 2021년 총 2회의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다문화 영유아의 이중언어 발달을 위한 부모 역량 강화 지원 방안 정책세미나', '육아친화마을 구현을 위한 현장 세미나'를 통해 연구과제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정책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심도있는 논의를 시간을 가졌다.

구분	일시/장소	주제	주요 참석자
제1차	2021. 11. 26(금) 연구소 대회의실	다문화 영유아의 이중언어 발달을 위한 부모 역량강화 지원 방안 정책세미나	발표 박은정 부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토론 옹포친 이중언어코치(은평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김정임 원장(본동어린이집) 장훈성 센터장(경상북도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준구 장학사(서울특별시교육청)
제2차	2021. 12. 17(금) 명동포스트타워 스카이홀	육아친화마을 구현을 위한 현장 세미나	발표 김나영 부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노현미 센터장(울산남구육아종합지원센터) 강하라 연구위원(부산여성가족개발원) 토론 맹다미 연구위원(서울연구원) 민연경 연구위원(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서영미 교수(호원대 아동복지학과)



다문화 영유아의 이중언어 발달을 위한 부모 역량강화 지원 방안 정책세미나



육아친화마을 구현을 위한 현장 세미나

유관기관과의 공동 개최 학술행사

육아정책연구소는 연구성과의 확산 및 정책화 노력을 위하여 정부부처, 시민사회 및 학계와 공동으로 육아정책 관련 학술행사를 개최하였다. 「(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육아정책연구소 공동 세미나」 공동 주치를 비롯하여, 한국다문화교육학회,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수출입은행이 주최하는 다양한 학술행사 세션을 구성하여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연구성과 확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

일시/장소	행사명	주최 및 주관기관	주요 참석자
2021. 2. 2(화) 온라인 생중계 (YouTube)	(사)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 육아정책연구소 공동 세미나: 수도권집중과 저출산대책	주최 (사)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 육아정책연구소 세션 (사)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 여성위원회	기조강연 국토계획과 출산(조영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발표1 수도권 인구 및 산업의 구조적 변화와 저출산고령화 대책 (이영성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발표2 농어촌 육아문제 해법은?(강은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토 론 권미경 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김덕례 실장(주택산업 연구원), 김수진 부장(LH 신혼희망타운사업부), 송요현 전문위원(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임미화 교수(전주대, 여성위원회 위원장), 조성철 부연구위원(국토연구원)
2021. 8. 13(금) 온라인 생중계 (ZOOM)	한국다문화교육학회 국제학술대회 KICCE Panel Sssion	주최 한국다문화교육 학회 세션 육아정책연구소	발표1 Closing the learning gap for ethnic minority chil- dren: a case study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in Hong Kong(Kevin Kien Hoa Chung 교수, The Education University of Hong Kong) 발표2 Challenges and Solutions: Indigenous Children's Care and Learning During the Pandemic Crisis in Taiwan(Wen-Feng Lai 교수, National Taiwan Normal University) 발표3 Policy Actions and Lessons for Supporting Young Multicultural Children Amid the COVID Pandemic in Korea(문무경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박은정 부연구위원) 토 론 Chee Wah SUM 교수(Singapore University of Social Scie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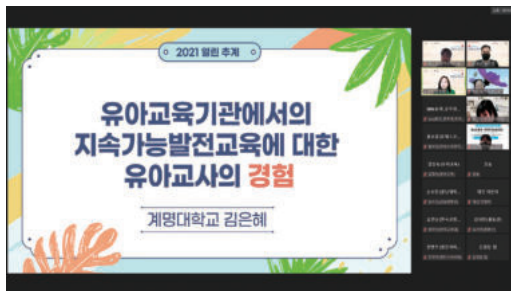
(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육아정책연구소 공동 세미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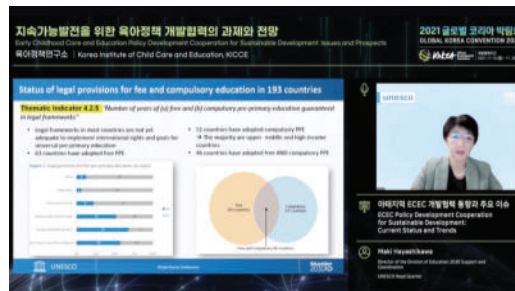
한국다문화교육학회 국제학술대회

유관기관과의 공동 개최 학술행사

일시/장소	행사명	주최 및 주관기관	주요 참석자
2021. 11. 13(토) 온라인 생중계 (ZOOM)	한국열린유아교육 학회 추계학술대회: SDG4.2공동 세션	주최 한국열린유아 교육학회 세션 육아정책연구소,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한국열린유아 교육학회	주 제 지속가능발전목표 SDG4.2 국내 이행 현황과 과제 발표1 한국 SDG4 이행 현황과 과제(박성호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 발표2 국제동향에 비추어 본 SDG 4.2 영유아부문 모니터링 이슈 및 과제(문무경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발표3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 유아교사의 경험과 어려움(김은혜 계명대 교수) 토 론 최미숙 교수(원광보건대)
2021. 11. 15(월) 온라인 생중계 (YouTube)	2021 글로벌 코리아 박람회: 육아정책연구소 세션	주최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한국국제 협력단, 한국 수출입은행 주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생산성본부, 대한무역투자진흥 공사, 한국국제물류협회 세션 육아정책연구소	주 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육아정책 개발협력의 과제와 전망 발표1 유아교육 개발협력 동향과 주요 이슈(Maki Katsuno- Hayashikawa 유네스코 파리본부 국장) 발표2 우즈베키스탄 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개발협력(Vitaliy Kim 우즈베키스탄 유아교육부 사무관) 발표3 베트남 유아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개발협력(Le Anh Vinh 베트남 국립교육과학연구원 원장) 토 론 정우탁 교수(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Cliff Meyers 박사(ARNEC) 김경철 교수(한국고원대, 한국유아교육학회장) 문무경 선임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



2021 글로벌 코리아 박람회

업무협약

육아정책연구소는 유관 기관 및 단체와 업무협약을 활발히 체결하여 연구협력을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2021년에는 국내·외 4개 기관과 내실있는 교류를 위해 업무협약을 진행하였고, 실제 연구 수행 및 협력, 세미나 개최, 기타 협력을 활발히 실시하였다. 전국시군구육아종합지원센터협의회, 어린이어깨동무, CBS, 우즈베키스탄 유아교육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연구수행 및 성과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우즈베키스탄 유아교육부와는 2017년에 이어 5년간 유아교육정책 정보와 데이터 공유 및 공동연구 추진을 위해 긴밀한 상호협력을 이어가게 되었다.

일시	협력기관	협약내용
2021. 4. 7(수)	전국시군구육아종합지원센터 협의회	- 영유아 보육 및 양육 관련 연구 자원 교류 및 유관사업 연계 - 영유아 및 가족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교류
2021. 7. 1(목)	어린이어깨동무	- 북한 어린이(임산부, 산모)를 위한 인도지원협력사업 - 남북 교육·보육기관의 인적·물적 교류사업 - 남북 어린이를 위한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 개발 - 남북 인도지원, 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교육 관련 공동연구 및 학술대회
2021. 11. 3(목)	CBS	- 생명돌봄 캠페인의 효율적 전개를 위한 '생명돌봄국민운동캠프' 구성·운영 관련 사항 - 생명돌봄 및 육아존중문화 캠페인의 효과적 시행을 위한 사항
2021. 12. 16(금)	우즈베키스탄 유아교육부	- 유아교육 혁신 정책과 정보, 데이터 공유 - 유아교육의 법적 규제 관련 정보 교류



업무협약

육아정책포럼

육아정책포럼은 육아 관련 현안 정책과제를 분석하는 '집중조명'과 국내·외 육아정책동향을 담은 '정책동향' 등으로 구성된 계간지이다.



호수	발행일	구분	주제	집필자
67호	2021. 3. 31	권두언	아동이 행복하게 성장할 권리, 사회적 책임	박상희 소장
		집중조명	아동학대 현황과 대응 정책	심의선 아동권리보장원 학대예방 기획부 차장
			어린이집 교사의 아동학대 및 권리 인식	양미선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정책동향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정책 추진방향-아동기본권의 보편적 보장을 중심으로-	성과공유정보팀
		소식마당	육아정책 소식/연구소 소식	성과공유정보팀
68호	2021. 6. 30	권두언	행복한 육아, 육아존중 문화로부터	박상희 소장
		집중조명	직장에서의 긍정적 육아존중문화 조성 방안	권미경 연구위원
			코로나19 상황 속 맞벌이 가구의 일·가정 양립 실태와 요구	조숙인 부연구위원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통한 육아존중	박원순 부연구위원
		정책동향	“모든 가족, 모든 가족구성원을 존중하는 사회”를 위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수립	김민아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장
		소식마당	육아정책 소식/연구소 소식	성과공유정보팀

호수	발행일	구분	주제	집필자
69호	2021. 9. 30	권두언	디지털 시대의 유아교육, 그린 스마트 미래 유치원	유구종 국립강릉원주대 유아교육학과 교수
		집중조명	유아교육에서의 원격수업과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활용	조운주 한국교통대 유아교육학과 교수
			아동권리측면에서 바라본 유아 미디어 이용과 교육	강은진 선임연구위원
		정책동향	국내·외 유·아동 디지털 교육 동향과 디지털 교육 발전 방안 탐색	남창우 동아대 교육학과 부교수
		소식마당	육아정책 소식/연구소 소식	성과공유정보팀
70호	2021. 12. 31	권두언	아동이 존중받는 육아정책	박상희 소장
		집중조명	문재인 정부 육아정책의 성과와 향후 과제 -2021년 부모, 전문가, 기관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김근진 부연구위원
		정책동향	부처의 육아정책 자체 성과평가	성과공유정보팀
		소식마당	육아정책 소식/연구소 소식	성과공유정보팀

육아정책 Brief

「육아정책 Brief」는 유아교육 보육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신속한 분석과 현실성 있는 정책제언을 제안하는 정책현안지이다. 2021년에는 코로나19를 비롯하여 입양, 북한이탈주민, 아동학대 등 긴급현안에 대한 일반국민의 이해를 돕고 관련 정책대응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호수	발행일	주제	집필자
85호	2021. 1. 26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 되는 입양을 위한 국내입양과정의 단계별 개선점	배윤진 부연구위원
86호	2021. 5. 14	놀이 중심 개정 누리과정에 대한 부모의 인식과 유아의 변화	김은영 선임연구위원
87호	2021. 5. 28	코로나19 전후, 영유아 육아 가구의 양육비용 변화	최효미 연구위원
88호	2021. 9. 14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정책, 여성과 육아에 초점 맞춰야	이윤진 선임연구위원
89호	2021. 11. 12	아동학대 제발 방지를 위한 관리 체계 개선	김나영 부연구위원

Issue Paper

「Issue Paper」를 통하여 단기적으로 부상하는
유아교육과 보육 분야의 현안에 대한 분석과
정책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호수	발행일	주제	집필자
1	2021. 5. 31	「2019 개정 누리과정」에 대한 원장의 인식과 실행 및 정책과제	김은영 선임연구위원
2	2021. 7. 13	영유아 부모의 보육지원체계 변화에 대한 인식과 어린이집 이용 시간	최효미 연구위원
3	2021. 8. 3	직장 내 육아문화 진단과 과제	권미경 연구위원
4	2021. 9. 14	빈곤가정 특성별 영유아 양육지원 요구 분석 및 지원방안	이정림 선임연구위원
5	2021. 10. 5	어린이집 맞춤형 다문화 보육지원 방안	박은정 부연구위원
6	2021. 11. 22	유아관찰업을 활용한 교사의 관찰기록 역량 지원 방안	강은진 선임연구위원 배윤진 연구위원
7	2021. 12. 16	수도권 인구집중 문제 해결을 위한 육아친화마을 조성 방안	강은진 선임연구위원
8	2021. 12. 20	저출생 시대, 중국 영유아 부모의 한국 육아용품 구매 경험과 선호	최효미 연구위원

I. 연구소 소개

II. 2021년도 주요연구

III. 2021년도 주요활동

IV. 2022년도 추진계획

KICCE Policy Brief

KICCE Policy Brief는 한국의 육아정책 관련 현안에 대한 분석과 정책 제안을 쉽게 서술하여 해외 유관기관 및 학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영문 간행물이다.



호수	발행일	주제	집필자
19호	2021. 11. 18	Public Postnatal Care Service for Mothers and Newborns in South Korea: Demands and Challenges	이재희 연구위원
20호	2021. 12. 9	Support of Government and Local Delivery System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2019 Revised Nuri Curriculum」	김은영 선임연구위원
21호	2021. 12. 29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n Defectors and Their Families Living in South Korea	이윤진 선임연구위원
22호	2021. 12. 31	ECEC Statistics of Korea: Services, Enrollment, Workforce, and Financial Resources	김동훈 연구위원

세계육아정책동향시리즈

세계 주요 국가의 육아정책 동향 관련 자료를 폭넓게 수집하고 분석하여 집필한 간행물로, 육아정책 연구의 기초자료로 널리 활용할 수 있다.



호수	발행일	주제	집필자
27호	2021. 12. 31	미국의 육아정책(II)	조은경 University of New Hampshire 교수 김은영 선임연구위원

I. 연구소 소개

II. 2021년도 주요연구

III. 2021년도 주요활동

IV. 2022년도 추진계획

육아정책연구

육아정책연구소는 2007년부터 학계, 정책 및 현장전문가, 관련 기관 연구자를 대상으로 「육아정책연구」를 발간하고 있다. 취학 전 영유아와 관련된 정책의 주요 쟁점 및 과제를 다루는 학술지로, 2013년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로 선정되었으며 2016년부터는 연 3회로 발간횟수를 늘려 새로운 연구결과를 소개하고 있다. 2021년도에는 총 13편의 논문이 게재되었다.



호수	발행일	주제	집필자
15권 1호	2021. 6. 30	초등 전환기 사교육 서비스 이용 행태에 관한 연구	최호미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이정원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김태우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원)
		공립유치원의 조직풍토가 교사의 전문성에 미치는 영향	안혜정 (연세대 유아교육과 조교수)
		어머니 직장의 가족친화제도 시행과 이용이 맞벌이-공동양육(dual earner-dual carer) 잠재집단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	최지은 (연세대 아동·가족학과 박사과정수료) 이지원 (연세대 아동·가족학과/인간생애와 혁신적 디자인 융합전공 석박사통합과정) 김현경 (연세대 아동·가족학과/인간생애와 혁신적 디자인 융합전공 교수)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통한 아동의 미디어 사용 유형화와 유형별 언어 및 집행기능발달	김경민 (고려대 4단계 BK21 지속가능생활시스템융합교육연구단 연구교수) 송지은 (고려대 일반대학원 생활과학과 박사과정 수료) 최정원 (고려대 일반대학원 생활과학과 박사과정 수료)

호수	발행일	주제	집필자
15권 2호	2021. 9. 30	유아의 인성과 유아교육기관적응 간의 관계에서 의사소통능력의 매개효과	장수연 (송의여대 아동보육과 조교수)
		서울 더불어키움(공영형) 유치원의 성과와 추후 과제: 학부모 만족도와 정책요구를 중심으로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
		유아교사의 직무환경과 행복감 및 교사-유아 상호작용 간의 구조적 관계	최혜선 (서울여대 아동학과 강사)
		부모의 허용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미디어기기 중독을 매개로	김경민 (고려대 4단계 BK21 지속가능생활시스템 융합교육연구단 연구교수)
15권 3호	2021. 12. 31	초저출산 시대, 전국민 부모급여 제도의 설계	양재진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정교수) 유란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정우윤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어린이집 교사의 수업 전문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및 기관 변인에 관한 다층분석과 그 정책적 함의	김혜리 (아이코리아 보육교사교육원 교수)
		취학 전 타인과 상호작용이 초등학생의 학업수행에 미치는 영향: 학교적응의 매개효과와 가족 상호작용의 조절된 매개효과	김지윤 (고려대 교육학과 박사과정) 이은진 (고려대 교육학과 석사과정) 하승혁 (고려대 교육학과 석사과정) 홍세희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
		유아기 기질 유형과 만 9세 미디어 사용의 종단적 관계	김연하 (경희대 아동가족학과 교수)
		부모의 결혼만족도와 부부갈등이 공동양육을 매개로 만 5세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김수아 (원광대 사범대학 유아교육과 특수신분교수)

International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육아정책 Brief」는 유아교육 보육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신속한 분석과 현실성 있는 정책제언을 제안하는 정책현안지이다. 2021년에는 코로나19를 비롯하여 입양, 북한이탈주민, 아동학대 등 긴급현안에 대한 일반국민의 이해를 돕고 관련 정책대응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호수	발행일	주제	집필자
15(1)	2021. 1. 6	Pedagogical intentions or practical considerations when facilitating children's play? Teachers' beliefs about the availability of play materials in the indoor ECEC environment	Tone Rove Nilsen (Faculty of Education and Arts, Nord University)
15(2)	2021. 1. 7	Inclusive practice and quality of education and care in the Dutch hybrid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system	W. M. van der Werf (Utrecht University) P. L. Slot (Utrecht University) P. N. Kenis (Tilburg University) P. P. M. Leseman (Utrecht University)
15(3)	2021. 1. 13	Early childhood education in Vietnam, history, and development	Thao Thi Vu (Murdoch University)
15(4)	2021. 4. 6	Storytelling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Time to go digital	Maila D. H. Rahiem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UIN Syarif Hidayatullah)
15(5)	2021. 5. 17	An investigation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teachers' attitudes, behaviors, and views regarding the rights of the child	Cagla Banko-Bal (Hacettepe University, Ankara) Tulin Guler-Yildiz (Hacettepe University, Ankara)
15(6)	2021. 5. 22	Fostering socio-emotional learning through early childhood intervention	Christina F. Mondt (Division of Developmental Medicine, Brazelton Touchpoints Center, Boston Children's Hospital, Harvard Medical School) Alison Giovanelli (Department of Pediatrics,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Francisco) Arthur J. Reynolds (Institute of Child Development, University of Minnesota)

호수	발행일	주제	집필자
15(8)	2021. 8. 3	Operationalization of self-regulation in the early years: comparing policy with theoretical underpinnings	Heather Braund (Faculty of Education, Queen's University) Kristy Timmons (Faculty of Education, Queen's University)
15(9)	2021. 8. 10	Fostering equitable access to quality preschool education in India: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Nirmala Rao (Faculty of Education, The University of Hong Kong) Namita Ranganathan (University of Delhi) Ravneet Kaur (University of Delhi) Rashi Mukhopadhyay (University of Delhi)
15(10)	2021. 8. 12	How child mental health training is conceptualized in four low- and middle-income countries	Panos Vostanis (University of Leicester) Seyda Erucar (Necmettin Erbakan University) Sadiyya Haffeejee (University of Johannesburg) Michelle O'Reilly (University of Leicester)
15(11)	2021. 9. 3	Does quality matter in determining child care prices? Evidence from private child care provision in Turkey	Didem Pekurmaz (Department of Economics, Bilkent University, Bilkent Campus) Meltem A. Aran (Development Analytics Research and Training Association) Nazli Aktakke (Development Analytics Research and Training Association)
15(12)	2021. 9. 30	Psychosocial support conditions in the orphanage: case study of Wolisso project	Getachew Abeshu Disassa (Department of Psychology, Jimma University) Dabala Lamessa (Department of Psychology, Ambo University)
15(13)	2021. 10. 9	Government commitments and teaching strategies for effective quality early childhood education in South Western Nigeria	Moyinoluwa Grace Owojori (Institute of Education, Obafemi Awolowo University) Taiwo Oladunni Gbenga-Akanmu (Institute of Education, Obafemi Awolowo University)
15(14)	2021. 10. 28	The effects of pediatric primary prevention programs on screen-time and reading habits of children in Jordan	Mustafa S. Yousuf (Department of Basic Medical Sciences, Faculty of Medicine, The Hashemite University) Heather Lea Harvey (Department of Basic Medical Sciences, Faculty of Medicine, The Hashemite University) Sanjai K. Parahoo (Business School, Hamdan Bin Mohammed Smart University) Basil Shawkat Ziadah (Department of Basic Medical Sciences, Faculty of Medicine, The Hashemite University) Muna Kilani (Department of Pediatrics, Faculty of Medicine, The Hashemite University) Eman Al-Kamil (Department of Basic Medical Sciences, Faculty of Medicine, The Hashemite University)
15(15)	2021. 10. 28	How stable is program quality in child care centre classrooms?	Petr Varmuza (Ontario Institute for Studies in Education/University of Toronto) Michal Perlman (Ontario Institute for Studies in Education/University of Toronto) Olesya Falenchuk (Ontario Institute for Studies in Education/University of Toronto)
15(16)	2021. 11. 17	The role of federal and state policy in addressing early childhood achievement gaps: parent perceptions and student outcomes related to 21st Century Learning Centers programming in the United States	Heather P. Williams (College of Education, Boise State University)

영유아와 부모가 행복한
육아정책의 실현을 위해
선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추진계획

- 2022년도 연구사업 추진방향
 - 중점연구사업
- 2022년도 사업개요
- 2022년도 연구사업 총괄표

2022년도 연구사업 추진방향

경영 목표

아동의 행복한 성장을 위한
미래지향적 정책연구 선도

국내외 의제에 대응하는
육아정책연구의 플랫폼 실현

포용적 경영혁신을 통한
기관 위상 제고

연구 사업 관련 주요 국정 과제

국정목표	국정전략	국정과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 • 고령사회 대비,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 •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및 예방 중심 건강관리 지원 • 의료공공성 확보 및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 •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 아동·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 • 미래 교육 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노동존중·성평등을 포함한 차별 없는 공정사회	•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 지원 및 사회적 차별 해소
	자유와 창의를 넘치는 문화국가	• 휴식 있는 삶을 위한 일·생활의 균형 실현

연구 사업 운영 방향

- 정부의 국정과제 기초와 주부무처의 정책 기초와 부합하는 연구과제 발굴 및 기획
- 일과 가정이 조화로운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
- 부모의 다양한 육아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지원 관련 연구
- 영유아 행복과 발달을 증진하기 위한 기초 및 정책 연구
- 보육·교육의 인적·물적 환경에 대한 연구
- 영유아 가구의 소비 및 육아물가 연구
- 육아정책의 개선과 재정적 효율화를 위한 모니터링 연구
- 코로나19 육아 환경 및 사회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연구
- 국제기구 및 동아시아, 유럽 관련 국제비교 연구
- 다양한 정책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한 연구사업 추진

중점연구사업

중점연구사업 선정기준

- 연구소 설립목적·비전과의 부합성
- 국가정책 현안과의 긴밀성
- 국정과제와의 부합성
- 국내·외 환경 변화 전망에 따른 대응성

중점연구사업명	요약														
가정양육수당 지원 가구 현황 및 제도 개선 방안	24-86개월 가정양육수당 지원 가구의 특성, 어린이집·유치원 외 돌봄 및 교육서비스 이용 현황 등을 파악하여 가정양육수당 제도가 목적에 부합하게 지원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가정양육수당 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영유아·임산부 건강지원사업 사업평가 및 발전방안	- 모자보건사업 시작 이래로 많은 사회적 변화가 있었으며, 여러 사회적 변화를 통해 모자보건사업이 발전해 왔으나,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사업 전반에 대한 진단이나 고민은 부족한 실정임. - 연구는 영유아와 임산부 건강지원사업에 대해 사업연혁 및 변화를 분석하고, 정책수요자와 제공자의 평가와 개선요구를 토대로 향후 추진 방향성을 모색하여 사회의 변화와 정책수요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영유아·임산부 건강지원 사업 개선을 위한 발전방안 도출을 목적으로 함. - 이를 위해 모자보건사업의 변화양상을 사회변화 흐름 안에서 파악하고, 정부의 영유아·임산부 건강지원 사업의 근거 및 내용 파악하며, 임산부와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 대상으로 만족도 중심 사업평가와 더불어 개선요구를 수렴함.														
취약·위기가정 양육역량 지원 방안 연구(Ⅰ): 위탁가정 양육역량 지원방안	- 위탁가정, 장애를 가진 부모, 미혼부모·청소년 부모, 조손가정, 한부가정 등 취약가정은 코로나19 이후 가정 내 양육 층대에 따른 돌봄공백과 교육격차의 확대 등의 위기에 특히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이들 가정의 양육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육아 매뉴얼 개발 및 지원 거버넌스 개선 방안을 포함한 종합적인 맞춤형 지원방안을 제시함. - 총 5개년 과제로 수행되는 연구이며 연차별 주제는 다음과 같음. <table><tr><th>구분</th><th>연구 주제</th></tr><tr><td>1년차</td><td>위탁가정의 양육역량 지원 방안</td></tr><tr><td>2년차</td><td>미혼부모·청소년 부모의 양육역량 지원 방안</td></tr><tr><td>3년차</td><td>장애를 가진 부모의 양육역량 지원 방안</td></tr><tr><td>4년차</td><td>조손가정의 양육역량 지원 방안</td></tr><tr><td>5년차</td><td>한부가정의 양육역량 지원 방안</td></tr></table> - 본 1차년도 연구는 포용국가 아동정책 및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가정위탁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위탁가정의 양육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진행함.	구분	연구 주제	1년차	위탁가정의 양육역량 지원 방안	2년차	미혼부모·청소년 부모의 양육역량 지원 방안	3년차	장애를 가진 부모의 양육역량 지원 방안	4년차	조손가정의 양육역량 지원 방안	5년차	한부가정의 양육역량 지원 방안		
구분	연구 주제														
1년차	위탁가정의 양육역량 지원 방안														
2년차	미혼부모·청소년 부모의 양육역량 지원 방안														
3년차	장애를 가진 부모의 양육역량 지원 방안														
4년차	조손가정의 양육역량 지원 방안														
5년차	한부가정의 양육역량 지원 방안														
코로나19 이후 영유아 발달 및 학습 격차 해소방안 연구	- 이 연구는 약 2년여에 걸친 COVID-19 팬데믹의 영향이 누적된 2022년 시점에 팬데믹을 경험한 취학 전-후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성장·발달 및 학습과 함께, 자녀양육가구의 돌봄과 교육·보육의 현황과 추이를 살펴봄. - 총 2개년 과제로 수행되는 연구이며 연차별 연구계획은 다음과 같음. <table><tr><th>구분</th><th colspan="3">연구대상(연령그룹별 아동·부모·교사 추적조사)</th><th>연구내용</th></tr><tr><td>1년차 (2022년)</td><td>만3세</td><td>만5세</td><td>초등1학년</td><td rowspan="2">· 아동 발달 · 신체적-정신적 건강 · 유초연계/초등전이 · 교육보육돌봄 서비스 이용 현황 및 변화/추이 · 사회경제적 요인 등 아동이 경험하는 환경 특성</td></tr><tr><td>2년차 (2023년)</td><td>만4세</td><td>초등1학년</td><td>초등2학년</td></tr></table> - 팬데믹 상황에서의 대응 조치가 아동에 미치는 영향을 아동의 성장·발달과 교육·보육·돌봄의 운영의 측면에서 2년에 걸쳐 연속적으로 데이터를 분석 및 추적 관찰함으로써, 팬데믹 하의 정책적 대응(input)이 아동에 미치는 영향과 격차의 누적(outcome)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언함.	구분	연구대상(연령그룹별 아동·부모·교사 추적조사)			연구내용	1년차 (2022년)	만3세	만5세	초등1학년	· 아동 발달 · 신체적-정신적 건강 · 유초연계/초등전이 · 교육보육돌봄 서비스 이용 현황 및 변화/추이 · 사회경제적 요인 등 아동이 경험하는 환경 특성	2년차 (2023년)	만4세	초등1학년	초등2학년
구분	연구대상(연령그룹별 아동·부모·교사 추적조사)			연구내용											
1년차 (2022년)	만3세	만5세	초등1학년	· 아동 발달 · 신체적-정신적 건강 · 유초연계/초등전이 · 교육보육돌봄 서비스 이용 현황 및 변화/추이 · 사회경제적 요인 등 아동이 경험하는 환경 특성											
2년차 (2023년)	만4세	초등1학년	초등2학년												

2022년도 사업개요

기관고유사업

기본연구사업

번호	과제명
	개요
1	육아지원정책 재정자료 구축·연계 방안 연구 육아지원정책 재정자료에 대한 국가차원의 표준화된 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통해 정부, 지자체, 교육청 등에 산재되어 있는 객관적인 재정자료 등 현황자료를 구축·연계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이를 통해 육아지원정책 재정자료의 체계적인 점검·분석 등으로 재정자료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2	평등한 돌봄권 보장을 위한 자녀돌봄 시간정책 개선방안 연구(I): 고용형태별 돌봄 격차 해소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부모와 아동의 보편적 권리인 돌봄권의 평등한 실현을 위해 자녀돌봄 시간정책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정책연구임. 1차년도 연구에서는 고용형태별 자녀돌봄 제도 사용현황 및 시간지원 욕구와 불평등성 양상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현행 제도의 맹점을 파악하여 자녀돌봄 시간정책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3	가정양육수당 지원 가구 현황 및 제도 개선 방안 24~86개월 가정양육수당 지원 가구의 특성, 어린이집·유치원 외 돌봄 및 교육서비스 이용 현황 등을 파악하여 가정양육수당 제도가 목적에 부합하게 지원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가정양육수당 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4	영유아·임산부 건강지원사업 사업평가 및 발전방안 모자보건사업 시작 이래로 많은 사회적 변화가 있었으며, 여러 사회적 변화를 통해 모자보건사업이 발전해 왔으나,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사업 전반에 대한 진단이나 고민은 부족한 실정임. 연구는 영유아와 임산부 건강지원사업에 대해 사업연혁 및 변화를 분석하고, 정책수요자와 제공자의 평가와 개선요구를 토대로 향후 추진 방향성을 모색하여 사회의 변화와 정책수요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영유아·임산부 건강지원사업 개선을 위한 발전방안 도출을 목적으로 함. 이를 위해 모자보건사업의 변화양상을 사회변화 흐름 안에서 파악하고, 정부의 영유아·임산부 건강지원 사업의 근거 및 내용 파악하며, 임산부와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 대상으로 만족도 중심 사업평가와 더불어 개선요구를 수렴함. 또한 관련정책 전문가 및 서비스 제공 주체 대상으로 영유아·임산부 건강지원 사업 추진의 효과와 개선요구를 수렴하며, 국내외 영유아·임산부 건강지원 사업관련 우수 사례를 수합하고 이를 토대로 영유아·임산부 건강지원 사업의 향후 과제를 도출하고 그 발전 방안을 구체화함. 이제까지 모자보건사업으로 추진하여오던 지원정책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기준에 준하여 영유아·임산부 건강지원사업으로 용어를 변경함.
5	한국아동패널 2008~2020 심층분석연구 육아정책연구소는 2008년부터 한국아동패널 조사 연구를 진행해오고 있으므로 2021년 기준 14개년의 아동 성장 발달 종단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는 바, 이를 활용, 다양한 측면에서 심층 분석 연구를 진행하여 국가육아정책수립을 위한 증거기반 정책 시사점을 찾고자하는 기초연구임.
6	지역사회 육아공동체 운영실태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지역사회 돌봄 생태계를 조사하고 지역의 육아공동체 대표 사례를 선정·분석함으로써 육아공동체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 연계 강화와 참여형 돌봄 문화 조성을 지원하는 정책연구임

번호	과제명
	개요
7	유아교육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시도교육청 행정 조직과 기능 개선 방안 본 연구는 유아교육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시도교육청 행정조직과 기능을 분석하고 제반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함. 이를 토대로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시도교육청 유아교육담당 행정조직의 자율성, 전문성과 효율성 확보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또한 시도교육청과 시도청간의 연계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8	어린이집 연장·보조·대체교사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2020년 3월부터 실시된 어린이집 연장보육 실시로 연장반교사가 새롭게 배치되고, 보육교사의 휴게시간 보장 등 처우개선을 위해 보조교사와 대체교사 공급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므로 해당 인력의 적정공급 수준과 배치 및 운영기준 개선, 근로여건 개선 등의 개선과제를 마련함
9	아동돌봄의 통합적 운영기반 구축연구 본 연구는 오늘날 다양하게 활발히 추진되었지만, 여전히 정책별로 분절적으로 제공되어 있는 아동돌봄 정책을 정책수요자 입장에서 지역기반의 종합적이고 체계화된 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는 통합적 운영 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함.

2022년도 사업개요

기관고유사업

연구지원사업

번호	과제명
	개요
1	KICCE 육아정책토론회
	각계 전문가의 의견 수렴 및 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육아정책 현안 발굴, 시의성 있는 정책대안 제시 등 육아정책 추진의 실효성 및 현장 적합성을 제고함.
2	국내·외 유관기관 교류 및 협력
	「아시아지역 육아정책연구의 선도기관(The ECEC Hub of the Asia region)」이라는 중장기 비전 실현을 위하여 활발한 국제교류를 통한 정책연구사업의 선진화와 전문화를 도모하며, 국제기구 및 유관해외기관과의 네트워크 확대를 통하여 기관의 해외 인지도 제고 및 국제경쟁력 강화, 육아정책관련 국제비교 협동연구 및 사업을 개발하고 기획함.
3	국내·외 육아연구 동향 및 정책 정보 수집 분석
	국내외 육아정책 최신 연구동향 및 관련 문헌과 전자 정보, 자료를 수집·분석·보급함으로써 국내 육아정책 자료의 데이터 बैं크 역할을 수행함.
4	연구기획사업
	연구사업의 질적 수준 제고 및 사회적 영향력 증대, 육아정책 전담 국책연구기관으로서의 공공성 및 책무성 확보를 위해 기관의 장·단기 발전계획 수립, 경영목표 추진·관리, 기본·수탁 연구과제 운영·관리·지원, 연구사업 수요조사 및 과제 발굴, 연구사업 관리 및 평가업무,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연구윤리위원회, 계약제도개선위원회 운영을 통한 연구사업의 윤리성·공정성 확보 추진, 기관 자체평가 연구, 산·학·연과 연구협력 등을 추진함.
5	연구성과 확산 및 기관 홍보사업
	연구사업 결과를 다양한 자료로 산출하여 정부부처, 육아관련 기관, 언론기관 등을 대상으로 연구성과를 확산하고 정보를 공유함.
6	학술활동 및 저널 발간
	과제의 질 제고를 위한 워크숍과 세미나, 국내외 학술지 발간사업을 통해 직원의 전문성과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 관련 학술정보 자료의 지속적 관리와 공유 등을 통하여 정책 연구기관으로서의 전문성 위상 제고를 도모함.
7	연구지원전산 운영
	원활한 연구활동을 위한 정보화 소프트웨어 및 전산관련 물품 등 구매 지원 및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지원함.

일반사업

번호	과제명
	개요
1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V): 2021~2022년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5년 연속과제 중 5차년도에 해당하는 정책연구로써, 4차년도(2020년)에 수정·보완한 육아정책 성과지표를 적용하여 2021년에 정부가 추진한 육아정책을 진단, 분석하고 미비한 점은 무엇이며 이를 위한 향후 개선과제와 우선순위를 도출하고자 함. 또한 5년 동안 진행된 육아정책의 추진과 관련된 중점 현안을 심층 분석하고, 국정과제의 성과 및 미비점을 정리함으로써 그동안 추진된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육아정책 방향을 제시함.
2	영유아 가구의 소비실태 및 육아물가 연구(V) 5개년 연속과제 중 5차년도 연구로 총 2개의 세부연구 과제로 구성됨. 육아 가구의 소비 행태 및 육아서비스 이용 행태를 지속적으로 추적 조사하며, 신규 표본 추가 구축을 통해 육아 가구의 자녀 양육 행태에 관한 신뢰도 높은 데이터(패널 자료)를 생산·구축하고, 이를 활용한 분석을 통해 시의성 있고 실효성 높은 정책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함. 주요 연구 내용은 매해 반복적으로 지속 조사하는 문항과 각 년도 주요 정책 변화 및 사회적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시의 적절하게 추가되는 설문으로 구분됨. 이와 함께 해마다 전년도까지의 패널 조사 자료를 활용한 심층 분석 주제를 발굴하여 심층 분석을 실시함. 연속적 조사 문항은 가계 소비 실태, 양육비용, 물가체감, 육아서비스 활용실태 및 정책 개선 요구 사항 등임. 이때 전년도 표본에 대한 추적조사 및 신생아 표본 추가 구축을 실시함에 따라 표본이 매해 확장됨. 시의성 주제는 1차년도 공유경제, 2차년도 아동수당 및 세제 개편, 3차년도 코로나19 긴급돌봄, 4차년도 비대면 육아서비스, 5차년도(본 연구) 영아양육수당임. 심층 분석 주제는 1차년도 표본 구축, 2차년도 가구소득계층별 양육비용 격차, 3차 초등전환기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이용 변화, 4차년도 코로나19로 인한 양극화 현상, 5차년도(본 연구) 코로나19로 인한 가정 내 양육 부담임.
3	『2019 개정 누리과정』 모니터링 및 지원방안 연구(Ⅲ) 개정 누리과정 모니터링 3년차 연구로 누리과정의 개정 방향인 유아 중심, 놀이 중심, 교사의 자율성 확대가 어느 정도로 이루어졌는지의 성과와 이로 인한 교사와 유아에 대한 영향력과 효과를 살펴봄. 이러한 결과를 기초로 개정 누리과정의 안착과 발전을 위한 정책 지원방안을 제안함.
4	취약·위기가정 양육역량 지원 방안 연구(Ⅰ): 위탁가정 양육역량 지원방안 위탁가정, 장애를 가진 부모, 미혼부모·청소년 부모,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등 돌봄취약가정은 코로나19 이후 가정 내 양육시간의 증대로 인해 돌봄공백과 교육격차의 확대 등의 위기에 특히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이들 가정의 양육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육아 안내서를 개발하고 지원체계 개선 방안을 포함한 종합적인 맞춤형 지원방안을 제시함. 1차년도 연구는 포용국가 아동정책 및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가정위탁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위탁가정의 양육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진행함.
5	저출생시대 육아인프라 추이분석 및 대응방안(Ⅰ): 임신·출산 관련 인프라 중심으로 저출생 심화 속에서 육아분야 인프라 현황 및 동향을 살펴보고, 지역별 불균형 진단, 육아인프라 수요-공급 분석 등을 통해 향후 인적·물적 인프라 대응방안을 주요 상황이나 정책 변화 등을 살펴보고 관련 정책을 제안함.
6	코로나19 이후 영유아 발달 및 학습 격차 해소방안 연구 이 연구는 약 2년여에 걸친 COVID-19 팬데믹의 영향이 누적된 2022년 시점에 팬데믹을 경험한 취학 전-후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성장·발달 및 학습과 함께, 자녀양육가구의 돌봄과 교육·보육의 현황과 추이를 살펴봄. 이를 통해 드러난 대응 과정의 사회경제적 격차와 아동의 발달 및 학습의 차이에 대한 실증 자료를 분석하여 격차 해소의 대응 방안을 마련함.

2022년도 사업개요

일반사업

번호	과제명
	개요
7	미래환경 대응 유치원·어린이집 조성방안 연구(Ⅰ): 공간혁신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미래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혁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그린스마트 유아 미래학교 추진 및 이에 상응하는 어린이집 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위한 공간혁신 전략을 제안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정책 연구임.
8	어린이집과 유치원 장애위험 영유아 조기발견 및 발달지원 종합 대책 방안(Ⅰ): 실태조사 및 조기선별 도구 개발 본 연구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장애위험 영유아 발달지원을 위한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4차년도 연속과제로, 장애위험 영유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임. 1차년도 연구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장애위험 영유아 실태를 조사하고, 기관에서 장애위험 영유아를 조기 선별하여 적절한 개입을 할 수 있도록 교사용 도구를 개발하고자 함.
9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 2022 (한국아동패널 Ⅱ) 우리나라 아동이 출생하여 영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를 거쳐 성장하면서 아동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가정, 기관 및 학교)이 아동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2008년부터 한국아동패널 자료를 축적해왔음. 2022년도 사업으로는 중학교 2학년이 된 아동패널 아동, 아동의 부모 및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15차 조사를 실시함. 본 15차년도 연구에서는 14차년도에 시작한 청소년문화향들을 지속해서 충실히 조사하면서, 변수를 수정 및 보완함. 또한, 중·고등학교에 실시할 조사에 대한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계획함.
10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연구 2022 (Korean ECEC Panel Study) 3,000~3,500명의 2022년 출생 예정 신생아들을 태내 환경부터 출발하여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총 10년의 기간 동안 우리나라 아동을 둘러싼 물리적·인적·심리적 환경이 성장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출생 후 성장하면서 어떤 발달 특성을 보이는지, 가정에서의 양육과정, 기관에서의 형식적인 육아지원 및 비형식적인 개별 육아지원을 통해 어떤 경험을 하는지, 그리고 이들이 속한 지역사회와 정부로부터 육아정책에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알아보고자 함. 또한 효과적인 양육 및 육아지원에 대한 횡단적·종단적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관련 학계 연구의 활성화 및 육아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 생성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11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홈페이지 등 운영 유지보수 업무용 Office 프로그램 라이선스 확보
12	전산실 운영 사업 안정적인 전력 공급 및 원활한 하드웨어 운영을 위한 온도 유지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안정적인 네트워크 운영 유지 정보자료실 운영 유지

2022년도 연구사업 총괄표

기본

번호	연구과제명
1	육아지원정책 재정자료 구축·연계 방안 연구
2	평등한 돌봄권 보장을 위한 자녀돌봄 시간정책 개선방안 연구(I): 고용형태별 돌봄 격차 해소를 중심으로
3	가정양육수당 지원 가구 현황 및 제도 개선 방안
4	영유아·임산부 건강지원사업 사업평가 및 발전방안
5	한국아동패널 2008-2020 심층분석연구
6	지역사회 육아공동체 운영실태 및 활성화 방안 연구
7	유아교육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시도교육청 행정 조직과 기능 개선 방안
8	어린이집 연장·보조·대체교사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9	아동돌봄의 통합적 운영기반 구축연구

일반

번호	연구과제명
1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V): 2021~2022년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2	영유아 가구의 소비 실태 및 육아물가 연구(V): KICCE 소비실태조사-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
3	「2019 개정 누리과정」 모니터링 및 지원방안 연구(III)
4	취약·위기가정 양육역량 지원 방안 연구(I): 위탁가정 양육역량 지원방안
5	저출생시대 육아인프라 추이분석 및 대응방안(I): 임신·출산관련 인프라 중심으로
6	코로나19 이후 영유아 발달 및 학습 격차 해소방안 연구
7	미래환경 대응 유치원·어린이집 조성방안 연구(I): 공간혁신을 중심으로
8	어린이집과 유치원 장애위험 영유아 조기발견 및 발달지원 종합 대책 방안(I): 실태조사 및 조기선별 도구 개발
9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 2022 (한국아동패널 II)
10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연구 2022 (Korean ECEC Panel Study)

I. 연구소개

II. 2021년도 주요연구

III. 2021년도 주요활동

IV. 2022년도 추진계획

2021년도 KICCE 연차보고서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2021 Annual Report

발행일 2022년 5월

발행인 박상희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주 소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70 9층

전 화 02 398 7700

팩 스 02 398 7798

www.kicce.re.kr

편집·제작 유월애 02 859 2278

본 간행물의 무단 판매 및 복제를 금함.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70 9층

Tel. 02 398 7700 Fax. 02 398 7798 www.kicce.re.kr